

여성이

힘을
복합

다
다
다

2020 vol.32

Zoom-in

'그들만의 리그' 장벽 '백 명의 레퍼런스'로 부순다

Issue&View

견고한 '남성 예능 판'을 뒤집은 송은이 리더십

이슈 더하기

꺾이지마사이다

CONTENTS

Zoom-in

'그들만의 리그' 장벽 '백 명의 레퍼런스'로 부순다

02



발행인
대전광역시장

발행일
2020년 12월31일

편집위원
주혜진, 길민지, 서정아, 심혜린, 양성욱, 조수은, 허용주

편집
김성곤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디자인·제작
디자인스튜디오203대전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은 대전광역시와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가 연 2회 함께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Issue&View

건고한 '남성 예능 판'을 뒤집은 송은이 리더십
통계로 보는 형님문화

10
14

Gender Talk

'형님들'과의 슬기로운 의정생활

18



문화와 젠더

만약 그들이 남성이었다면?
왜 최초의 여성 조각가는 법정에 서야 했을까?

20
24

함께하는 생각

버티고 이겨내는 대전 여성들의 이야기

28



Deajeon IS U

대전시 성인지 정책 한눈에 보기

32

이슈 더하기

꺾이지 마사이다
책방정류장

34
39



자유기고

너는 거기, 나는 여기

41



‘그들만의 리그’ 장벽 ‘백 명의 레퍼런스*’로 부순다

여성을 바라보는 일은 흔한데, 여성의 목소리를 듣는 일은 드물다.
끈끈하게 어깨동무한 형님들 사이에서 혼자 있는 여성의 목소리는
묻히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형님들 간 끈끈함의 정체는 무엇이고,
우린 이걸 어떻게 부술 수 있을까. 한 명의 멋진 언니보다
여럿의 연결을 꿈꾸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reference: 참고, 문외, 참고문헌 등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참고할 수 있는 사람’의 의미로 사용했다.



대담자: 좌측부터 조수은(충남대학교 빅웨이브) 서정아(한남대학교), 길민지, 심혜린(키이스트), 주혜진(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



“
남성 중심적인 권위주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은 '들러리' 혹은 '센 언니'

주혜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성 리더십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이유로 '형님문화'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인된 정의는 없지만, "남성 중심적인 권위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님문화'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요?

조수은 '그들만의 리그?' 무너뜨리기 힘들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구조 또는 형태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자랑 남자는 친구 사이가 될 수 없다"는 말은 '여성은 남성과 친구라는 동등한 관계가 될 수 없다'는 뜻으로 느껴져요. 이것도 '형님문화'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요?

심혜린 남성이 조직 구성의 기본이고, 남성들이 지내기에 좋게끔 모든 구조를 만들어놔서, 그 안에 여성이 끼어들어 갈 수 없는 상태가 '형님문화'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길민지 대표적인 예능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남성 출연자들끼리 8~90년대 교복 입고, 대장을 중심으로 역할 설정해서 웃기려고 하는 '아는 형

남'이요. 예능이라는 포맷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부감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예능을 위해 만든 캐릭터라고 생각하니까요.

심혜린 여성 게스트는 '희롱거리' 혹은 '세다'라는 두 가지 이미지로 소비가 되는데, 대체로 많은 경우 전자에 속해요. 젊고 예쁜 여성 아이들은 대부분은 놀림거리로 소비되고, 드물게 놀림에 반박하거나 강하게 대응하는 여성에게는 '센 여자'라고 하죠. 그게 칭찬으로 들리지 않아요.

서정미 학교를 배경으로 한 예능이면서 여성 고정 출연자는 없죠. 예능 프로그램들도 그렇고, 다른 미디어도 보면 남성 중심의 프로그램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길민지 실제로 여성 예능의 점유율도 엄청 낮아요. 예를 들어 '라디오 스타'는 공중파고, '비디오 스타'는 케이블에 편성되니까, 시청률이나 화제성 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시작점부터 다르죠.

심혜린 여성이 주인공인 판타지 소설은 로맨스가 없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또, 로맨스가 없더라도 여성이 주인공이면 분류는 로맨스 판타지



가 된대요. 여성이 주인공이면 사랑을 해야 하고, 남성이 주인공이면 본인의 불우함이나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세계를 구한다는 거국적인 스케일로 프레임이 굳어져 있다는 거죠.

서정미 한국과 미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은 무조건 사랑으로 끝나고 미국은 스토리와 관련된 전문성을 보여주면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주혜진 여성은 남성의 시각에서 들러리로 소비되거나, 특정 이미지로 문화 콘텐츠 속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네요.

끼워주지 않는 형님들

심혜린 '형님문화'가 공적인 관계를 마치 사적인 것처럼 표현한다고 생각해요. 스스로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느낌이에요.

길민지 전 오히려 '형'이라는 호칭 자체는 사적인데, 굳이 '님'을 붙여 존칭으로 만들어 사용해서 공적으로는 더욱 단단해지고, 심리적 거부감도 없앤 것 같아요.

서정미 남성들이 사용하는 호칭에서 서열이 느껴진다고 생각한 게, 흔히 여성들이 쓰는 단어는 언니, 오빠 이렇잖아요. 그런데 남성들은 '형님', '누님' 뭔가 이렇게 '님'을 붙여 존칭으로 쓰면서 서열 느낌을 확실히 더 주는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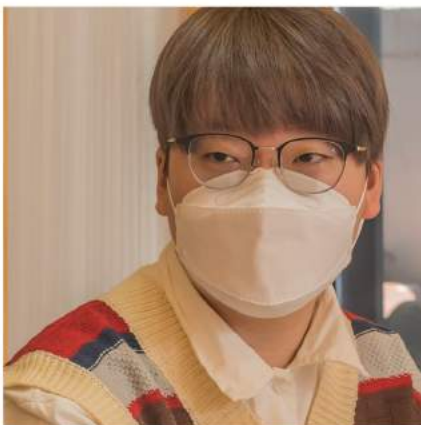
조수은 남성들끼리 모여서 무슨 일을 하면요, 사적으로 만남이 이어지는데, 여성들은 일 끝나고 바로 헤어진다 말이지요. 여성은 공사가분명한 것에 비해서 남성은 경계가 모호하다고 생각해요.

주혜진 그렇게 모호하게 만들어서 끈끈해져야 일의 효율성이 커진다고 생각하죠. 진짜 중요한 논의는 술 마시면서, 저녁 회식은 꼭 해야 하고요. 목적 달성하고 헤어지면, '차갑다', '정이 없다'고 얘기하죠. 저녁 시간 긴 회식은 여성보다 남성이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말이지요.

조수은 혈연·학연·지연이라는 말이 있는데 추가로 '흡연'이라는 말까지 덧붙이고 싶어요. 여성과 남성 다 있는 자리에서 남성들끼리 '우리 한대 피우러 가져' 해놓고, 그 자리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죠.

심혜린 흡연하는 문화에 속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흡연을 하거나 커피잔 쥐고 따라갔다는 사례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그 커뮤니티 안에 끼워주지 않는다는 게 '형님문화'의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 여성은 공사가 분명한 것에 비해서 남성은 경계가 모호하다고 생각해요 ”



그 많던 여자 선배들은 다 어디 갔지

주혜진 끼워주지 않는 문화와 여성의 성공을 가로 막는 장벽 '유리천장' 원가일맥상통하지 않나요?

심혜린 저는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과 교수진의 비율만 봐도 유리천장을 굉장히 실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학교는 여학생이 20%쯤 되는데, 여교수 비율은 이보다 훨씬 낮아요. 게다가 여학생이 많다고 알려져있는 학교를 봐도 교수진은 거의 남성 교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길민지 「보이지 않는 여자들」이라는 책을 보면, 여성에 대한 통계가 없어서 이런 게 더 강화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의학 교재에서도 생식기 부분만 다르고 신체 구조의 기본 이미지는 남성으로 되어 있다든지, 채용에서도 여성은 어떤 인재를 뽑아야 할지 모르니까 '익숙한 남성을 뽑아야지', 이런 인식이 고정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과는 엄청난 '여초과'인데 여성 교수는 2명 뿐이에요. 교수님들도 '분명히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미디어 전공이라서 여학생이 많았는데 박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없다'고 하세요. 꾸준히 오래 연구해야 하는데, 남아 있던 여학생들마저 결혼하거나 육아를 위해서 잠깐 쉬고 그러다 보니 사라지는 거죠.

심혜린 '남성 디폴트'를 기반으로 문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성을 끼워주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출산, 육아 등 가정을 돌보기 위해 생기는 여성의 공백이 사회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고, 그 공백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커리어를 쌓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아이도 가져야 하니, 여성 입장에선 커리어 개발 시기를 놓칠까봐 딜레마가 생기게 되죠. 그 과정에서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조수은 아이를 안 가진다고 하면, 그 여성에게 '이기적인 사람이다', '우리는 저출생 국가인데 그러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책임을 떠넘기죠.

주혜진 바로 그런 게 여성리더가 양산되지 않는 이유, '유리절벽'에서 떨어지는 이유, 천장을 뚫지 못하는 이유나, 사라지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사실 가장 힘든 시기는 맞거든요. 30대 초중반은 출산과 커리어 사이에서 갈등할 시기여서 모든 걸 서포트해주는 환경이 아니면 너무 힘들죠.

길민지 학과에서 진로 멘토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 오는 선배들은 다 남성이에요. 여성은 딱 한 명 있었어요. '그 많던 여자 선배들은 다 어디 갔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들 일은 하

“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자신에 대한 과소평가가 학습된 것 같아요

”



고 있는데 그런 데에 잘 안 오는 거예요. 여성들은 그런 모임 자리에 익숙하지도 않고,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자신에 대한 과소평가가 학습된 것 같아요.

서정이 다들 이미 남성들이 주도하는 모임에서 겪어봤으니까요. 정말 후배나 학교에 대한 사랑이 열렬한 사람 아니면 다시 또 학교에 가서 그런 상황을 겪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조수은 졸업하고 나서도 변함이 없는 사회에서도 혼자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혼자 하는 게 익숙하니까 그런 것 아닐까요?

“

정말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이 '형님문화' 안에서
적당히 적응 하면서 버티는
와중에 여성네트워크에
힘을 쏟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

주혜진 그런 자리에선 '면접을 잘 보려면 이런 걸 준비해', '이런 스펙이 필요해'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게 잘난 척 같기도 하고 허세같기도 해서 여성들에게 익숙치 않은 느낌이 있어요.

심혜린 그런데 여성 선배들 얘기 듣는 거 너무 중요해요. 졸업한 선배들이 여학생 간담회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가감 없이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이야기했던 거 같아요.

길민지 여학우 모임이 따로 있기도 하던데, 정기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심혜린 저희 학교는 여학생 모임이 활성화된 편은 아닌데, 사실 여학생 네트워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껴요. 남성들은 연구실 간 풋살이나 축구 같은 운동모임을 통해 친해지면서 공동 연구나 지원 정책 같은 이야기를 하고, 기회를 얻기도 하는데 여학생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는 거죠.

조수은 여성연대나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최근에 서야 논의되고 있는데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심혜린 문제는, 정말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이 '형님문화' 안에서 적당히 적응 하면서 버티는 와중에 여성네트워크에 힘을 쏟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성 모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만들기 쉽지 않아요.

주혜진 내가 여성임을 드러내는 것이 과학기술 사회에서 얼마나 불편한가에 대해 여성과학기술인들은 얘기하죠.

심혜린 안그래도 여학생은 소수다 보니 뭘 해도 주목을 받기 쉬운데, 이런 여성 모임을 주도하면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죠. 특히 요즘은 페미니스트라고 수군거리기도 하고.

서정미 공감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유독 이런 이슈에 우리나라 남성들은 예민한 것 같아요. 자기 가족 중에도 여성이 존재할 텐데 왜 그렇게 예민할까, 그게 정말 궁금해요. 그런 사람들만 모아 놓고 대화를 해보고 싶을 때도 있을 정도로요.

조수은 대표적인 여초 직업군인 초등교사의 경우 남성에게 비해 여성 입학과 채용 커트라인이 높

다고 해요. 남성 교사가 필요하다고, 점수가 낮아도 할당제로 뽑아줘요. 그런데 경찰이나 소방 같은 직군에서 여성을 뽑을 때는 남성과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주혜진 그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교대 들어갈 때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수월하게 들어갔죠. 남성 교사가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남성은 커트라인을 낮춰서라도 뽑는 거죠. 초등학교는 여성 교사가 훨씬 많지만 승진할 때는 남성들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키워주고 끌고 가죠. 그럼 이공계에서는 여성이 소수인데 여성을 끌어주느냐? 그렇지 않죠.

조수은 남성을 굳이 찾아내서 지원하는 것을 사회적으로나 일반적으로 큰 문제 삼지 않으면서, 남초 직업군에서 여성 할당제를 한다고 하면 남성들이 다 벌떼같이 일어나죠.





남성중심문화에 적응 못하면 살아남기 어려워

서정미 우리 학교는 '생리 공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생리로 인해 쓰는 제도인데도 신청서에는 '여학생 공결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성들끼리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 '여성 공결'이라고 말을 많이 해요. 생리라는 말을 입에 담기가 어려운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여성 교수님께서 "생리 공결인데 왜 여성 공결이라고 하니? 당당하게 생리 공결이라고 해라" 이렇게 강의 시간에 모두 앞에서 말씀해주셨죠. 그게 정말 좋았어요. '생리 공결'이라는 단어 차제를 감추려고만 할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누군가는 주도해야 한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조수은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여성리더가 정말 필요하죠. 너무 없어요. 학생회장도 다 남성이고.

심혜린 특히 우리 학교는 여학생이 소수다 보니까 이럴 때 여성 교수님들의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여학생 휴게실이 생긴 것처럼 여성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할 수 있는 발화 권력이 있는 사람이 존재해야만 해결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조수은 그런데 대표가 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여성도 있는 거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겹치고 겹쳐서 '형님문화'가 보존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이 여성들에게 겁을 주는 것 같아요.



심혜린 리더가 되기 전에 남성 중심적인 문화에서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렵거든요. 대학원에서 5명 중 나 혼자 여성인 비율로 몇 년을 보내야 하고, 그 후에 사회에 나가도 이 비율이 늘어 나지 않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모든 것에 따지를 거는 투사가 되면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화에 순응하는 형태로 자신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 안에서 one of them(그들 중 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남성들한테서는 '여기에 있는 여자들은 여자도 아니야'라는 식의 비아냥을 듣거나 없는 사람 취급당하게 되죠.

조수은 맞아요. '런닝맨'에서도 여성 고정 출연자들은 여성으로 안 보는 느낌? 예쁘게 꾸미고 나오면 "어, 뭐야?" 이라고, '조폭마누라' 같은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도 심한 것 같아요. 남초사회의 소수 여성을 여성으로 평가하지 않고 '너희는 유사 남성'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싫어요.

심혜린 중요한 건 유사 남성 취급하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취급을 해주진 않는다는 점이에요. 자기들끼리 뒤에서 비웃는 대상 정도로만 여기죠.

서정미 평소보다 조금 더 꾸미고 여성적으로 보이면, "오늘 남성 게스트로 아이돌이 나와서 꾸민 거냐"는 식으로 항상 흘러가요.

주혜진 여성성의 양가적 측면이라고 봐요. 여성성을 드러내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어떤 상황을 마주할지 계속 생각하게 되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이런 슬픈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사회적 약자가 가지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심혜린 저는 여성성이나 남성성이라는 인식 자체에서 탈피해서 업무에 가장 효율적인 상태인 '나'를 만들고 일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볼까요? 그냥 '성공하려고 유사 남성이 되고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요.

“

남초사회의 소수 여성을
여성으로 평가하지 않고
'너희는 유사 남성'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싫어요

”



조수은 보여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대학 들어와서 머리 짧고 화장 안 하는 동아리 사람들 보면서 변화할 수 있었어요. '전시'라고 하잖아요. '전시'가 자신과 타인에게 주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심혜린 그런 '전시'가 저를 보는 다른 누군가에게 다양한 영향을 줄 텐데,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명예 남성이 되고 싶은가 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싫어요. '코르셋'으로 대표되는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고전적 여성성을 따르고 싶지는 않지만, 유사 남성을 흉내내서 생존한 케이스로 보여지고 싶지도 않다는 점에서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주혜진 여성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자기 정체성을 계속 찾아가고, 새롭게 구성해 가는 모습을 많이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투쟁에서 살아 남기가 쉽지가 않죠.

완벽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모습의 여성리더를 원한다

주혜진 지금부터는 여성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내가 생각하는 여성 리더의 모습, 롤모델을 얘기해 볼까요?

서정미 미국도 남성 배우들 대우가 더 높다잖아요. 어느 해외 영화제에서 일부러 여성 배우들끼리 모여 입장한 적이 있었어요. 여성 평등과 동등한 권리를 위한 시위였다고 해요. 한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는 단체로 모여 의미 있는 장소에서 시위한다는 것이 더 영향력이 클 테니까요. 프레임이 썩워지면 앞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표현했다는 게 멋지더라고요.

조수은 요즘 블라인드 면접을 하잖아요. 그 블라인드 면접을 승진 심사에도 적용하면 좋겠어요. 많은 연구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제도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길민지 성별영향평가 제도가 있잖아요. 일반 연구에서도 성별을 나눠서 분석 결과를 내렸으면 좋겠어요. 조직 내 다양성이 추구되어야 더 많은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다양성이 성소수자, 장애인뿐 아니라 성별 자체도 포함돼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VR기계의 경우 대부분 만든 사람이 남성이고 실험 대상자도 남성이다 보니 여성들이 이걸 이용할 때 왜 멀미를 더 심하게 느끼는지 모르는 거예요.

주혜진 그래서 젠더 사이언스라는 표현이 있어요. 과학지식은 '젠더 뉴트럴(중립적)'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차별성과 차이를 계속 연구하고 통제도 생산해야 평등에 가까워지는 거죠.

심혜린 의학이나 과학기술도 주로 남성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해요. 개발되는 약이 여성에게는 다르게 작용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연구가 부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다

“

사실 능력 면에서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도 앞에 서봐야 그 사람의 역량도 강화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



른 영역에서도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여성이 고려되는 항목들이 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제도가 상세하게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되도록 강제하는, 지금은 단순히 여성에 대한 배려의 차원으로 해석이 되었는데, 배려가 아니라 권리이고 의무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조수은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려면 연구나 실험이 있어야 하니까 여성 연구자가 정말 많아져야죠. 어떤 물건이 여성용으로 만들어지면 '핑크박스'가 붙는단 말이에요. 이런 불합리한 문제도 고려해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여성 연구자를 배출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줬으면 해요.

서정미 제도적인 뒷받침을 바탕으로 사회가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대중매체에 드러난 성역할 고정관념을 얘기했듯이,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는 전환점이나 가부장적인 관

행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내용을 대중매체를 통해 많이 노출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김숙씨가 '가모장제'를 통해 큰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런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벗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면 제도가 구축된 후에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심혜린 '한 명의 롤모델보다 백 명의 레퍼런스'가 있으면 좋겠어요. 학교만 봐도 정말 소수의 여성 교수님들이 계세요. 학창시절 동안 '너희는 소수니까 너희가 잘못하면 모든 여학생들이 욕을 듣는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는데, 이 시선에서 교수들도 벗어나지 못했더라고요. 말투가 차분하거나 모노톤의 여성 교수님이 있으면 '그 교수님 쌀쌀맞다. 기가 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더 냉랭하거나 폭력적이라고 알려진 남성 교수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남성 교수는 여러 종류의 교수 중 한 명일 뿐이고, 여성 교수는 한 명의 예시가 '여성 교수는 전부 좀 그래'라고 전체 여성 교수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되는 일


이 너무 많아요. 하나의 여성리더 이미지가 소수를 대표하는 모습으로 고착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좋은 리더든 나쁜 리더든 상관없으니까, 다양한 리더가 있으면 좋겠어요.

조수은 저는 완벽하지 않은 롤모델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괜히 나까지 완벽해야 할 것 같고,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는 건데 실수하면 큰일이 날 것 같은 이런 부담감이 은연중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허점이 있지만 자연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주혜진 남성들이 허점을 보이면 '인간미 있다'고 그러는데, 저도 언니 세대가 되고 나니 '완벽하지 않으면 좋은 언니가 될 수 없다'라는 압박이 생겨요.

김민지 '기가 세다'는 이미지가 없는 보통의 여성 연예인들이나 평범한 여성들이 리더를 하면 좋겠어요. '저렇게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나는데, 나도 같이 나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뛰어난 건 아닌데 평타는 치잖아?' '저 사람은 리더로 뭘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뭐 별거 아니겠네?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사실 능력 면에서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도 앞에 서봐야 그 사람의 역량도 강화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정미 남성들이 지배하는 세계에 사는 것 같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우위를 점령하는 여성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알고 보니 실세는 여성이다' 이런 말이 자주 들렸으면 좋겠어요. 남성들만의 세상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여성리더들의 모습이 보이고, 다양한 사례가 많으면 좋겠어요.

주혜진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거부하겠어'란 자신감으로 '형님문화'의 견고한 벽을 부수고 셀 수 없이 많은 여성 롤모델 레퍼런스가 쏟아졌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견고한 '남성 예능 판'을 뒤집은 송은이 리더십



자료_MBC 다큐 플렉스 화면 캡처

최지은 | 작가

대중문화 웹 매거진 <매거진>, <텐아시아>, <아이즈>에서 기자로 일했다. 2015년 이후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여성으로서 한국 대중문화를 어떻게 볼 것인지 고민하다가 2017년 「관찮지 않습니다.와 최근 「엄마는 되지않기로 했습니다.」를 썼다.

얼마 전 '여성 예능 전성시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봤다. 2020년 하반기에 등장한 E채널 <노는 언니>, tvN <식스 센스>, JTBC <갬성캠핑>, MBC <놀면 뭐하니> '환불 원정대' 프로젝트 등 여성 중심 예능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흐름에 관한 내용이었다. 물론 남성이 다수인 영역에 진출하는 여성의 비율이 2, 30%만 넘어도 '여풍'이나 '여성시대'라고 호들갑 떠는 언론의 특성을 고려해야겠지만, 불과 5년 전만 해도 여자끼리 놀고 웃기는 예능 프로그램을 이처럼 다양하게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하기 어려웠음을 돌이켜보면 놀라운 변화인 것은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예능은 인맥으로 돌아가는 게 많은데 여자는 거기서 밀린다.
남자들은 녹화 후 함께 술을 마시거나 하면서 친해지고 끈끈하게 인맥을 쌓고,
호흡이 맞으면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왔을 때 서로 추천해 주기도 한다.
하지만 여성들은 그런 자리에 끼기 어렵다 보니 소위 ‘라인’을 형성하기 힘들다.”

“남자 버라이어티는 프로그램 중심이 되는 사람이 주변에서
분위기 잡아줄 파트너들을 직접 구성하거나 서열 정리를 어느 정도 하는데
여자 버라이어티는 그렇지 않다.”

“시청자들은 여자가 몸 개그를 하면 나댄다, 상스럽다고 욕한다.
하지만 남자가 하면 ‘제대로 한다’라고 칭찬한다.”

“여성 시청자들은 남자를 좋아한다.
남성 시청자들은 예쁜 여자가 아니면 무관심하고,
나이 든 여자나 똑똑한 여자는 싫어한다.”

“메인이 남자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와 호흡을 맞출 또 다른 남자를 찾는 게 자연스럽다.
예를 들어 유재석이 있으면 옆에는 하하를 세우면 된다.”

여자 없는 예능의 시대

2015년으로 시계를 되돌려보자. MBC <무한도전>과 KBS <해피 선데이> ‘1박 2일’ 등 남성들만으로 구성된 리얼 버라이어티가 엄청난 인기를 누려온 여파로 방송가에서는 무엇이든 남자끼리 하는 것을 흥행 보증수표로 여기고 있었다. 한 예능 PD는 “남자들 집단 예능이 ‘안전빵’이라는 건 누구나 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여행도 남자끼리 가고 딸도 남자가 키우고 개도 남자가 키우고 살림도 화장도 남자가 했으며 ‘남자’, ‘수컷’, ‘형(님)’을 제목에 내건 프로그램이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졌다. 바야흐로 남자는 숨만 쉬어도 방송 아이템이 되는 시대였다. 젊은 여성 연예인들은 외모로 반짝 화제가 되거나 남성 예능 속 ‘홍일점’, ‘꽃병풍’ 정도의 자리만 얻을 수 있었고, 중년 기혼 여성의 경우 종편에서 살림, 건강, 육아, 시집살이 토크를 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비혼 여성 예능인 송은이와 김숙은 “애하고 시어머니가 없어서” 방

송에 자리가 없어졌고, 박미선과 김신영을 하차시킨 KBS <해피투게더 3>는 전현무, 김풍, 조세호를 투입하며 분위기를 ‘남탕’으로 전환했다. 이처럼 ‘여자 없는 예능’ 현상이 심해지는 이유에 관해 예능 PD와 작가들에게 물었을 때 돌아온 답변은 위와 같았다.

예능계의 형님 문화, 제작진의 관성, 시청자의 이중잣대 속에서 척박해진 토양에 여성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없어 보였다. 페미니즘 리부트(2015년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그러나 온·오프라인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펼쳐진 새로운 흐름의 여성운동)를 경험한 여성 시청자들은 미디어에서 더 많은 여성의 활약을 보고 싶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정작 방송계에서는 어떤 여성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오랫동안 여성이 주변부로 밀려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여성 예능인이 ‘올드하다’거나 ‘비호감’이라는 선입견에 갇혀 버렸기 때문이었다.

웃기는 여자들이 벌인 새로운 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던 흐름을 바꾼 것은 '나이 들고 똑똑한 여자' 송은이다. 20년 넘게 성실히 활동해 왔지만 점점 불러주는 곳이 줄어들고, 친한 동료 김숙이 캐스팅됐던 프로그램에서 하루아침에 잘리는 것을 본 그녀는 "우리가 그만 두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을 방송국을 우리끼리 만들자"며 뉴 미디어인 팟캐스트로 진출해 <송은이·김숙의 비밀보장>(이하 <비밀보장>)을 만들었다. 유료 광고가 없어 '지인 광고'를 내보내고, 출연하는 여성들의 에피소드처럼 기존 방송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주제를 생생하게 다룬 <비밀보장>은 곧 차트 1위에 올랐다. 김숙이 이영자와 지방에 가며 차 안에서 나눈 대화를 녹음한 '이영자 휴게소 먹방'은 훗날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이영자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비밀보장>에서 '에레나'라는 '부캐'를 통해 우유부단한 청취자들의 고민을 속 시원히 상담하던 김숙은 JTBC <최고의 사랑>에 출연하며 가상 남편 윤정수를 휘어잡는 '가모장숙'으로 뜨거운 인기를 얻었고, 다시 TV로 돌아와 데뷔 후 가장 활발한 방송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비밀보장>의 성공 이후 기획자이자 제작자로서 송은이의 능력은 본격적으로 빛을 발했다. 처음에는 지인의 사무실에 책상 하나 달랑 놓고 시작한 일은 제작사 '콘텐츠랩 비보'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비록 김생민의 과거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며 폐지되긴 했지만, <비밀보장>의 한 에피소드에서 시작되어 지상파 TV에 정규 편성되었던 KBS <김생민의 영수증>은 2017년 가장 화제가 된 예능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 송은이가 깔아놓은 판에서 이영자, 최화정, 박소현,故박지선, 황보, 이지혜 등 수많은 여성 방송인들의 존재감도 다시금 선명해졌다. 여성의 존재를 예외로 취급하지 않고 외모나 나이로 폄하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여성들은 편안히 자신을 드러내며 시청자를 웃길 수 있었다. 김신영의 "하고 싶은 게 생겼다"는 말 한 마디에서 시작된 프로젝트 그룹 '셀럽 파이브'의 성과 역시 빼놓을 수 없다. 김신영, 신봉선, 안영미 등 멤버들은 KBS <개그 콘서트>,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 등 공개 코미디의 황금기에 눈부신 활약을 펼쳤고 MBC 예브리원 <무한 걸스>에서도 뛰어난 예능감을 보여주었지만 2017년 하반기 당시에는 다른 여성 예능인들과 마찬가지로 경력이 끊겨가는 상태였다. 그러나 송은이는 이 한참 어린 후배들과 함께 맹렬히 춤과 노래를 연습하며 웹 예능 <판벌러>를 제작하고 음악 방송 예까지 진출해 화제몰이에 성공하며 이들의 커리어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콘텐츠랩 비보의 계열사 '미디어랩 시소'를 설립한 송은이는 2020년 여름, 이들 모두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다.

“

제가 그들을 스타로 만들어줄 능력은 없지만,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라면 작은 것이라도
놓치지 않고 잘 들어줄 자신이 있다

”



자료_MBC 다큐 플렉스 화면 캡처

귀 기울이고 손 잡아주는 언니의 리더십

지난 10월 방송된 MBC <다큐플러스> '은이네 회사'에서 송은이는 "제가 그들을 스타로 만들어줄 능력은 없지만,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라면 작은 것이라도 놓치지 않고 잘 들어줄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안영미가 '19금 토크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것도 송은이의 조언 덕분이었고, 신봉선의 따뜻한 심성과 말솜씨에 주목한 것도 송은이었다. 그리고 압도적인 연기력을 가졌지만 한동안 그 끼를 펼칠 기회가 마땅치 않았던 김신영은 송은이와 손잡은 뒤 2020년 최고의 '부캐', '둘째 이모 김다비'로 대박을 터뜨렸다. 그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얘기에 귀 기울여 준 사람이 거의 없었다. 다들 '뭐 그런 일을 벌이려고 해?' 그랬는데, 송은이 선배는 그걸 듣고 두 달 있다가 '신영아, 그때 네가 얘기했던 걸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한다. 이 회사가 망하든 내가 망하든 지켜줄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했다.

송은이 리더십의 핵심은 자신이 중심에 서는 대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굴해 적재적소에서 빛나도록 조력하는 것이다. 남성 예능인들처럼 방송사가 먼저 판을 짜 주거나 서로 밀어주고 끌어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그는 동생들과 언니들의 손을 잡고 함께 판을 벌였다. 2018년 백상예술대상 수상 무대에 선 송은이는 "놀이터에서 혼자 놀면 재미없잖아요. 가능한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동료들과 함께 열심히 놀고 싶고 판을 벌이고 싶다."라고 말했다. 송은이가 보여주는 리더십이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심지어 예능에서도 우리가 익숙하게 보아 온 권위주의 리더십의 안티테제라는 점은 중요하다. 많은 남성 예능이 '1인자'와 '2인자' 등 서열을 매기거나 멤버 중 한 명을 놀리고 몰아가는 분위기로 재미의 동력을 얻었던 것과 달리 송은이는 리얼 버라이어티에서도 누군가 소외되거나 눈치 보지 않도록 끊임없이 살피고 멤버들을 챙긴다. 김숙이나 안영미가 돌발 행동을 할 때는 "숙아!", "영미야!"를 외치며 혼내는 척 하지만 그것 역시 상대의 캐릭터가 돋보이게 만드는 장치의 일환이다. 개성 강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동료들 사이에서 '상식인'을 담당하는 그가 나이나 힘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통솔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주류에서 밀려나고서도 오로지 능력 하나만으로 리더가 되고 성공을 일구며 자신을 증명한 덕분이다. 그리고 자신이 잘 될 때 다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점점파이를 키우며 얻은 신뢰 덕분이기도 하다.



자료_ Olive 밥블레스유 화면 캡처

“
놀이터에서 혼자 놀면 재미없잖아요.
가능한, 더 많은 동료들과 함께,
열심히 놀고 싶고요. 판을 벌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물론 지난 5년 동안 예능계의 판도가 변한 모든 공을 송은이에게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MBC <나 혼자 산다>의 약진과 박나래의 연예대상 수상, 웹예능 <오늘부터 운동동>을 통해 2020년 가장 사랑받는 예능인으로 떠오른 김민경의 활약, 박세리라는 예능 대어의 등장은 송은이가 벌인 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자들은 재미가 없다”는 말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통용되던 시기에 ‘여자들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끈질기게 보여준 송은이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여성이 응원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여성 예능인에게 유독 가혹한 한국 사회에서 송은이는 처음으로 이들을 함께 호명하고 조명을 비추고 마음을 돌보며 무대와 유티어를 만들어준 든든한 ‘선배님’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않았을지 모르는 결과를 만들어낸 송은이의 선한 영향력에 굳이 ‘여성적’ 리더십이라는 말을 붙이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이 놀라운 리더십이 여성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은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W](#)

통계로 보는 형님문화

‘조연’으로 사는 여성들

본래 의미를 뒤집어버린 언론·방송계 종사자들 덕분에 나이 들어서도 트렌디한 존재가 된, 그리고 끈끈한 인맥으로 서로를 끌어주는 ‘아재’들은 머릿수로나 영향력로나 예능 전반을 장악했다. 그러나 그들의 서클 안에 들어있지 못한 여성이나 나이 어린 사람, 비혼자들은 어쩌다 그 세계에 초대되더라도 미숙하거나 이질적인 존재로 취급되고 무례한 대접을 받기 일쑤다.

최지은의「괜찮지 않습니다」중에서

남성 중심적인 서열과 권위로 무장한 채 ‘형님’, ‘아우’ 관계로 서로 밀어주는 ‘그들만의 리그’는 대중문화 속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 속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형님문화’를 다양한 통계로 살펴본다.

여성은 안돼? 못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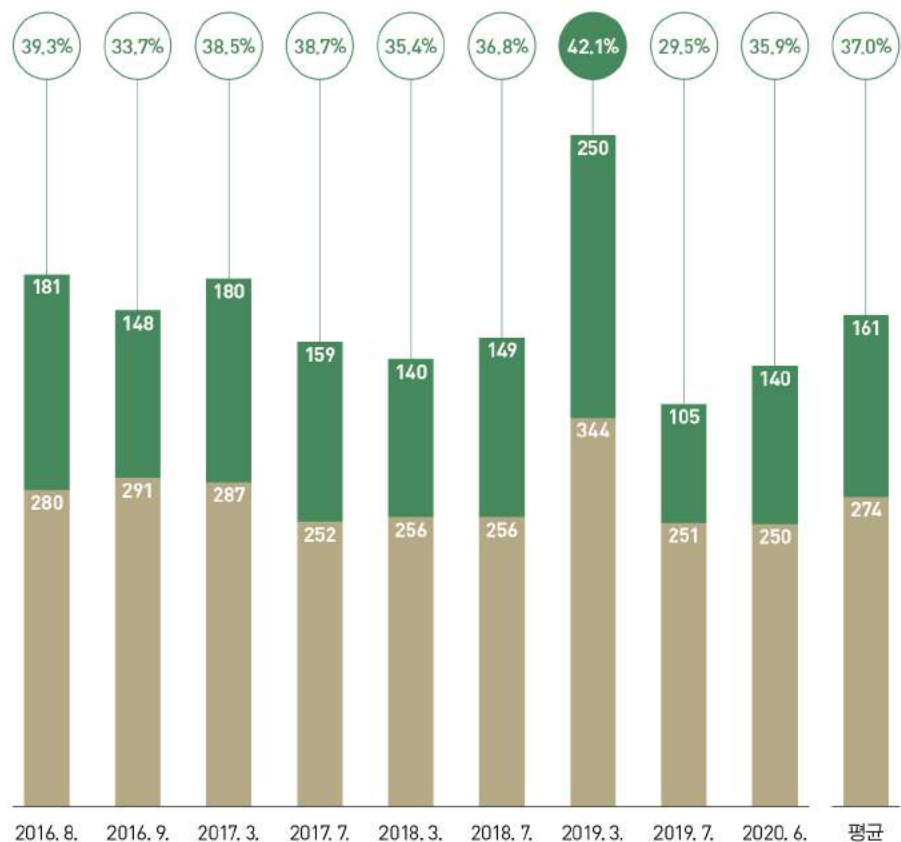
2020년 7월, 서울YWCA는 대중매체를 모니터링 하여 예능·오락프로그램 출연자 성비를 분석한 자료를 냈다. 그래프를 보면 2019년 3월¹⁾을 제외하고 여성출연자의 비율은 4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매해 모니터링 기간 및 프로그램 선정방식과 수가 달라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지난 5년간 출연자 성비 평균은 여성 37%, 남성 63% 수준이라는 것은 알 수 있다.

예능·오락 프로그램에서는 주 진행자와 고정출연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 진행자의 경우 남성이 7명인데 반해, 여성은 1명에 그쳤으며, 고정출연자의 경우 여성이 20명(14.2%), 남성이 121명(85.8%)으로 남성이 6배 많이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 2019년 3월은 여성출연자가 대다수인 〈내일은 미스트롯〉이 모니터링 대상으로 포함되어 여성출연자비율이 높아졌음.
출처: 서울YWCA(2020),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 예능·오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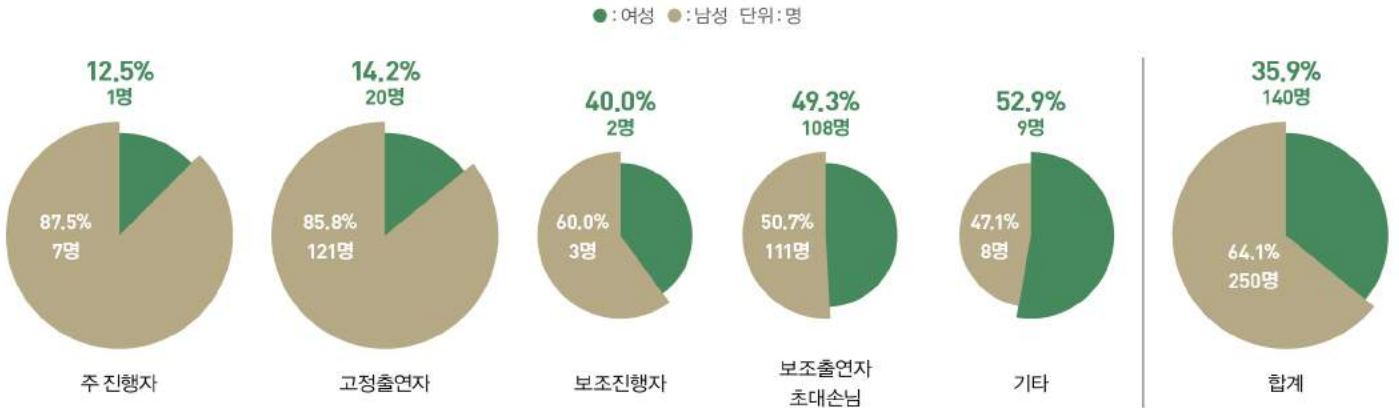
5년간 예능·오락 프로그램 출연자 성비

■: 여성 ●: 여성 비율 ■: 남성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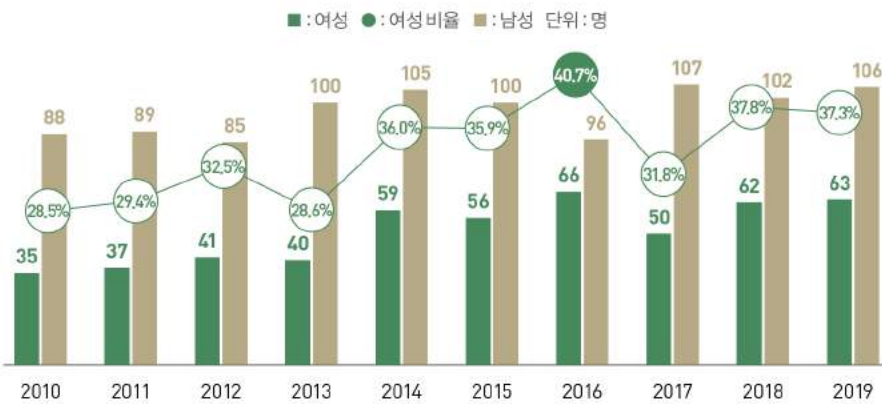
자료: 서울YWCA(2020),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 예능·오락」

예능·오락 프로그램에서의 성별 역할 (2020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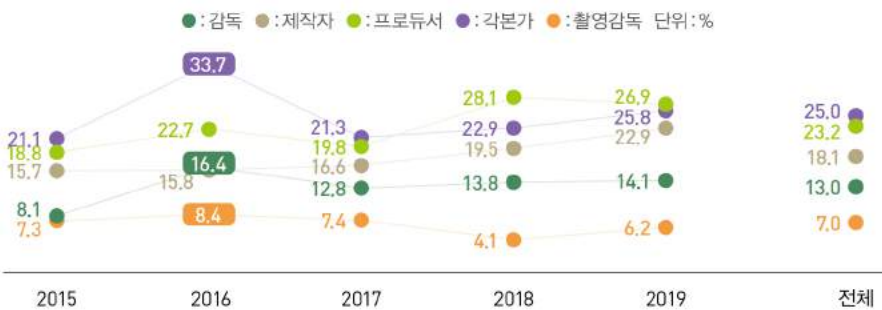
자료: 서울YWCA(2020),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 예능·오락」, 2020년 6월 조사기준

개봉영화 주연 성비



자료: 영화진흥위원회(2020), 「한국영화 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재구성

실질 개봉작 기준 여성헤드 스태프 참여율



자료: 영화진흥위원회(2019), 「2019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재구성

공식처럼 되어 버린

'남성' = 주연·스태프, '여성' = 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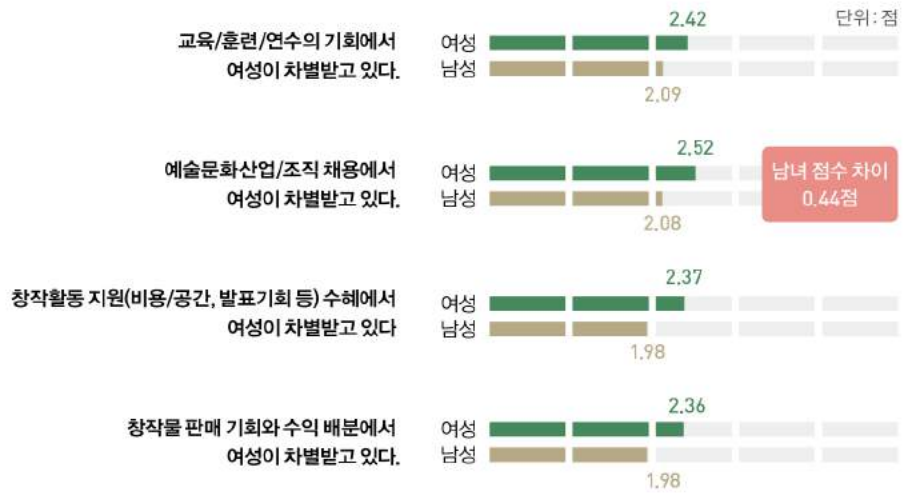
영화계의 주연과 제작 스태프의 비율도 예능·오락 프로그램에서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 주연 성비²⁾ 통계를 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개봉한 영화에서 주연 1,487명 중 여성은 509명(34.2%), 남성은 978명(65.8%)으로 나타났다. 2016년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도에서 여성 주연의 비율이 40% 이상을 넘지 못했다. 2016년은 여성의 주연과 감독, 각본가와 촬영감독의 비율이 가장 높은 해다.

스태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실질개봉작³⁾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자. 모든 직종에서 평균 30%를 넘기지 못하는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높은 직종은 각본가(25.0%), 프로듀서(23.2%), 제작자(18.1%)의 순이었고, 촬영감독의 경우에는 7%라는 아주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2) 캐릭터와 배우 이름이 표기된 엔드 크레딧에서 첫 번째로 올라온 배우를 주연으로 명명하고 캐릭터의 성별이 아닌 배우 혹은 성우의 성별을 기준으로 함. 출처: 영화진흥위원회(2020), 「한국영화 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3) '상영회수 30회 미만, 오픈버스, 실험 다큐멘터리를 제외' 한 작품을 대상으로 함. 출처: 영화진흥위원회(2019), 「2019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대전 여성 예술인들, 더 차별받고 있다고 느껴

대전세종연구원 대전문화재단과 함께 대전형 예술인 복지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구축을 위한 「2019 대전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항목 중 '여성 차별'에 대한 네 가지 질문의 응답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강하게 차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술문화산업/조직 채용에서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는 질문에서 남녀간의 인식 차이가 0.44점으로 가장 컸다. 남녀간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한 T검정 결과, 모든 문항에서 남녀간에 차이가 있었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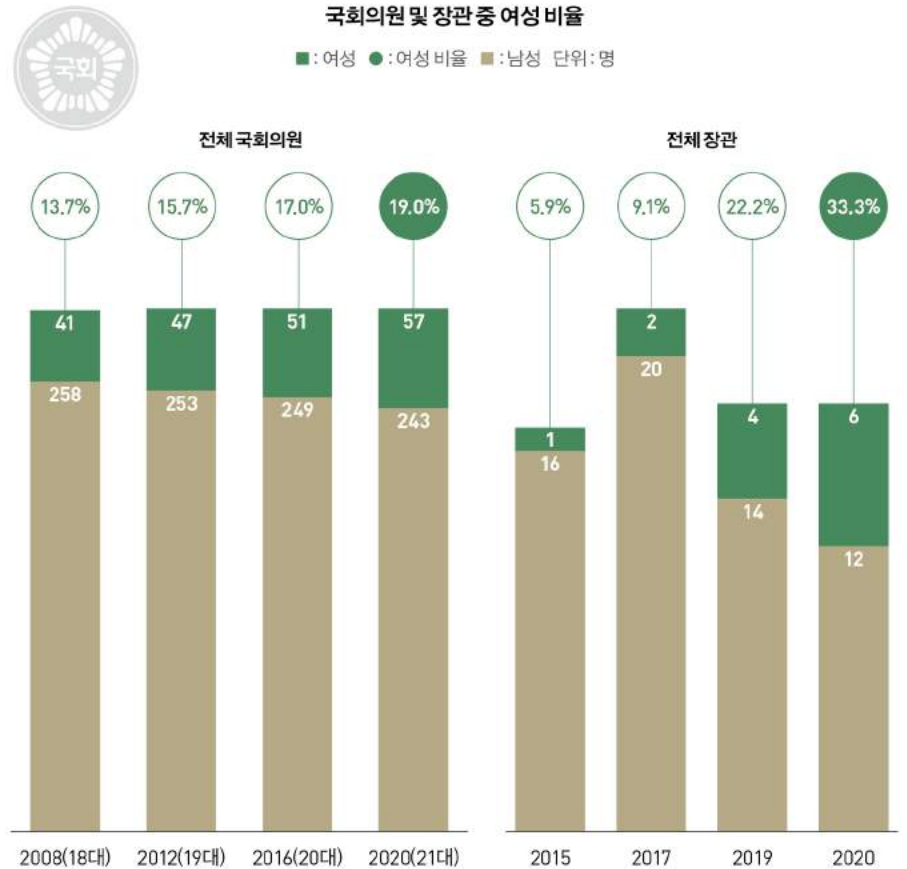


·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의 비율을 합해 '그렇지 않다'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비율을 합해 '그렇다'로 해석함
 · 점수는 5점 척도로 평균한 값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차별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 출처: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Brief No.105 (2020.9.30.)

우리사회 리더의 성별 균형부터 바로잡아야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한 '국가성평등지수'의 2018년 결과는 72.9로 2013년부터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⁵⁾ 8개 분야의 지수를 산정하는데, '의사결정' 분야에서 유난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시·도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역성평등지수'도 있다. 대전시는 매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나, 역시 '의사결정' 분야의 점수가 매우 낮다. '의사결정' 지수를 산출하는 기준이 '국회의원 비율(국가) /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지역)',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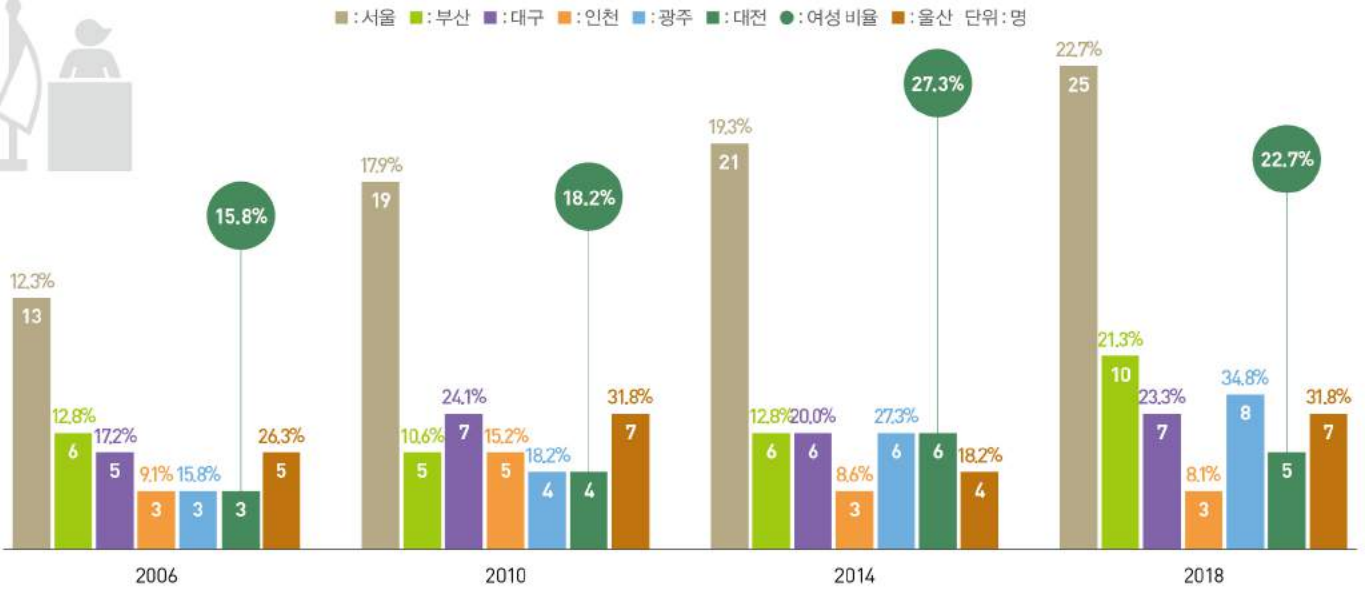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 총 300명 중 여성은 57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 및 비율을 기록했다.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는 2016년 51명(17.0%)에서 2020년 57명(19.0%)으로 6명이 증가했다. 지역구 253명 중 29명(11.5%), 비례대표는 47명 중 28명(59.6%)이다. 여성 국회의원 수가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대전의 역대 여성 국회의원의 수는 여전히 '0'이다. 중앙행정기관 장관 18명 중 여성은 6명(33.3%)으로 2015년 1명(5.9%)에서 6배 증가하였다.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 DB, IPU 'Women in Poli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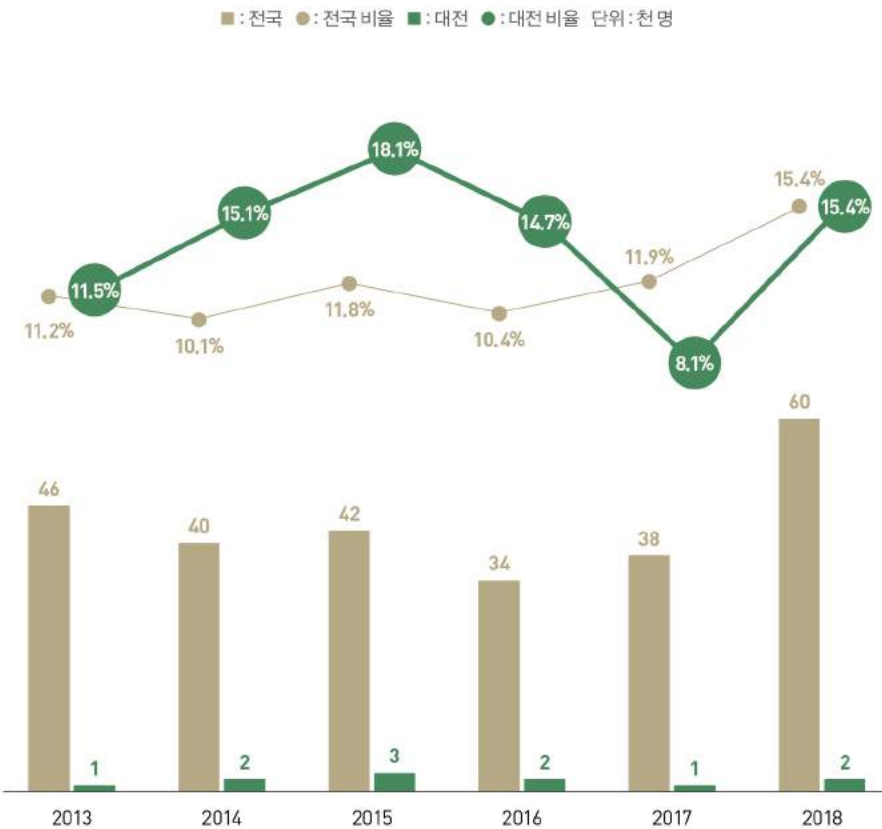


광역의회 여성 의원 비율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 DB, IPU 'Women in Politics'

관리직 여성 근로자 비율



출처 : 여성가족부(2019), 2019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네 번의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전국의 여성 광역의원 비율은 2018년(19.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전은 2014년(27.3%)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모든 기간 및 지역에서 여성 비율 40%를 달성한 경우는 없었고 2018년 광주광역시의 34.8%가 가장 높은 기록이다.

관리직 근로자의 여성 비율은 전국 평균 2013년 11.2%에서 2018년 15.4%로 4.2%p 상승했다. 약 14천명 증가했다. 여성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2018년 광주광역시(19.8%)였고, 대전시는 2015년에 18.1%로 최고점을 기록하고 하향세를 보이다가 2018년에 15.4%로 상승하였다. ⁴⁾

4)대전문화재단과 대전세종연구원이 공동연구한「2019년 대전 예술인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에서 분석한 결과의 일부를 재가공한 것이며, 전체 내용은 대전세종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Brief No.105」에 있음.

5)2013년 68.9, 2014년 69.3, 2015년 70.1, 2016년 70.9, 2017년 71.7명.

성평등 지수의 값은 통계 생산연도 기준이며, 완전불평등 상태인 0에서 완전평등 상태 100까지의 범주를 가짐.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9), 「2019년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

맨스플레인

‘형님들’과의 슬기로운 의정생활

황은주 | 유성구의원

남성 인플루언서

형님 문화



“

여성은 미성년을 제외하고는,
공적인 의사결정과
가장 멀리 있는 집단이다

”

나이 때문에 가진 편견이 있었던 것 같으며, 나에게 어떤 공무원이 찾아왔다. 회의 때 나의 발언에 대해 불만을 가졌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톤으로, 70대 남성 의원님이 했다면 불만이 있었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나이와 직위가 일치하지 않는데 대해 불편함이 있었다고 털어 놓았다. 나이가 자식뻘 되는 나에게 지적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제는 내 발언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정성에 공감하게 되었고, 추진하려는 일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다. 마음고생 많지 않느냐며 따뜻한글이 담긴 책 선물도 함께. 눈물이 핑 돌았다. 그동안 속았이 했던 마음을 한꺼번에 위로 받는 느낌이었다. 지면을 빌어 그분의 솔직한 용기와 진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싶다. 이렇듯 나의 존재는 이쪽 세계에선 무척 낯선 것이었다. 20대, 그 중에서도 여성은 미성년을 제외하고는, 공적인 의사결정과 가장 멀리 있는 집단이다. 의회에 와서 가장 먼저 보게 된 현실은 정당, 공식사회, 각종 단체 할 것 없이 구성비는 물론, 리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50·60대 남성들이라는 점이었다. 여성들은 여전히 많은 경우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로 동원되고 있다. 우리 사회 전체가 50·60대 남성 중심의 구조로 짜여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지역사회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채워져 있다는 것에 새삼 놀랐다.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그들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지역사회 정치-행정-경제 영역 어디에 속하든 같은 고향, 같은 학교, 같은 거주지 등으로 엮여 한두 다리만 건너면 모두가 이어져 있고, 형님 동생으로 끈질 붙린다. 누구든 공식 석상 밖에서는 '아는 형님'으로 통한다. 좁은 지역사회 내에서 더 좁은 남성 '인플루언서(influencer)'들의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황은주(30) 의원은 2018년 유성구에서 대전지역 최연소 기초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

성평등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물처럼 흐르는
 일상으로 가려면 더 많이
 걸어야 한다 그 길을 더 많은
 또래의 여성들과 걷고 싶다


”

이 네트워크 안에서 작동하는 '형님 문화'는 대체로 나이에 따른 서열과 '의리'문화에 기반하고 있다. 문제는 사적 관계가 공적 관계에서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다. 높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필요한 중대 사안에 대해서도 보이지 않게 작동한다. 나이에 따른 서열 문화는 소통을 수직적으로 만든다. 나이 많은 사람의 의견이 타당하지 않더라도, 나이 적은 사람이 거부하기 쉽지 않다. 어린 사람이 조직 안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것 혹은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형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기 십상이다. 이는 다양한 의견과 더 나은 대안을 만들 가능성을 줄이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의리'로 통용되는 조직 문화인데, 여기서 '의리'는 대체로 속한 조직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 충성심을 의미한다. 공적 가치에 대한 봉사라기보다는 집단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에 더 가깝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공직사회 내에서도 직위가 아닌 이름으로 '형님'으로 불리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본다. 직급으로 위계와 역할이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는 경우에도 그렇다. 사적인 서열·친분과 공적 의무·역할은 분리되어야 함에도, 종종 경계는 쉽게 무너진다. 어떤 공적 토의가 이루어 지거나 결정이 내려졌을 때, 자신에게 불리하다 생각되면 '의리 없다'든지 '어떻게 자네가/형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냐'와 같은 반응이 나온다. '우리가 남이가'같은 정서가 작동하는 것이 아닐까. 사람이기에 서운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을 집단에 대한 '배신'으로 받아들이며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 결국 공적인 토론과 해결이 어렵게 되는 것은 분명 문제다.

이러한 좁은 사회에, 형님도 아우도 아니고 기존의 어떤 친분 관계나 이해관계로도 엮이지 않는 낯선 20대 여성은 그 존재 자체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적잖이 당황스럽고 불편했을 것이다. 나 역시 가장 당혹스러웠던 것은 어떤 이슈에 대한 공식석상에서의 의견이 내용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사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었다. 가령, 의원으로서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담당 부서장을 사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든지 혹은 업무상 협력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든지 하는 일이었다. 공적 관계 안에서의 사적인 교류와 친분이 모두 나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친분은 사람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더 쉽게 이끌어 내고, 신뢰를 기반으로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조직 내 개방성과 수평적 문화 그리고 공적 사안과 역할을 구분하는 의식이 담보된다는 조건이 붙을 때 긍정적이다. 이는 공직사회 일수록 더욱 필요한 조건이다.

지금까지의 형님 문화가 문제인 이유는 무엇보다 '시민'의 존재를 지운다는 데 있다. 무엇이 시민 모두를 위한 길인지를 중심에 놓고 토론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좁은 관계 논리에 빠져 결정을 한다.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행동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기에 정치인과 공직자는 공적(公的) 의식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한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으로 공익을 가장 위에 두는 공평무사(公平無私)의 자세가 필요하다. 설령 내가 사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할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덧붙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이 되려면 다양성이 핵심이다. 지금처럼 동질성이 높은 집단은 폐쇄적이기 쉽다.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기도 어렵다. 성별만 보더라도, 유성구는 오늘날까지 한 번도 구청장이 여성이었던 적이 없다. 부구청장도, 국장도 여성이었던 적이 없었다. 여전히 대전시 사무관(5급) 중 여성 비율은 17.8%, 6급까지 포함해도 35.8%에 불과하다. 우리 공직사회가 '고인 물'이 되지 않으려면, 간부 공무원의 여성 비율을 높이려는 노력과 함께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 등 정치적 소외 계층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더 많은 공론의 장과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개방적인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지역 간 인사교류가 더 활발해지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성평등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물처럼 흐르는 일상으로 가려면 더 많이 걸어야 한다. 그 길을 더 많은 또래의 여성들과 걷고 싶다. 그들이 정치 영역에 진출해 다양성을 품는 지역사회, 정의롭고 열린 공직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다. 



만약 그들이 남성이었다면?

메릴 스트립이 열연한 세 편의
‘여성 리더’ 영화

지나라 | 스토리콘텐츠 말·글 대표

“

이 영화를 여성 리더를 다룬 대표적인
영화 중 하나로 꼽는 것은 그것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리더라면 누구나 겪었을 인간적
고뇌와 고독을 그려냈기 때문입니다

”



여성 리더를 다룬 영화는 남성 리더를 다룬 영화보다 훨씬 적지만, 작품성과 흥행성을
두루 갖춘 영화를 가끔 만날 수 있다. 사진은 영화 <철의 여인>의 한 장면.
<사진 출처=필라멘트 픽처스>

영화 <델마와 루이스(1993년)>로 스타덤에 오른 지나 데이비스는 이제 영화바깥에서 더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직접 미디어 젠더연구소를 설립해 미디어 속에서의 성차별과 여성 소외를 사회적 문제로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국제구호기구와 공동으로 2019년부터 '여성이야기 다시 쓰기(Rewrite Her story)'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8년 한해 20개 국에서 최고 매출을 기록한 56개의 영화 속 남녀 캐릭터와 리더십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58편의 영화에 등장한 캐릭터 1,859명 중 여성은 33%(남성 67%)에 불과했습니다. 리더로 나온 캐릭터의 성별은 여성 27%, 남성 42%였습니다. 심지어 영화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두 배 이상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할리우드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여성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다룬 <델마와 루이스>가 개봉한 지 25년이 지났지만, 영화 속에서 여성은 여전히 주변인에 머물고 있는 셈인데요. 그래서 일까요? 여성 리더, 여성의 리더십을 다룬 영화, 게다가 작품성과 흥행성까지 갖춘 영화를 만나면 가뭄에 단비처럼 반가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영화 속 여성 리더는 과연 어떤 모습이고, 어떤 존재일까요?

☞ '철의 여인' 대처의 삶을 그린 <철의 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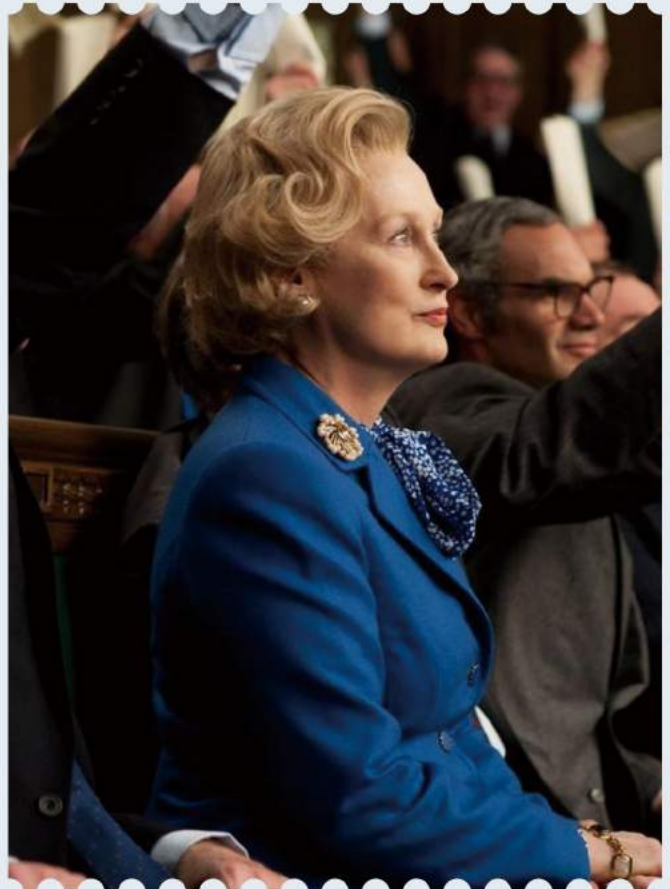
유럽 최초의 여성 총리,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세 번 연임에 성공한 총리, 11년 재임 기간 신자유주의를 내세운 과감한 정책과 개혁을 이끌었던 인물. 주인공은 '철의 여인'으로 불린 마거릿 대처(1925~2013)입니다. 취임 당시 장기 불황에 빠진 영국 경제를 회생시키고, 포클랜드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영웅으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유명사처럼 따라붙는 '대처리즘'에 밝은 빛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영국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했지요. 지나친

민영화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사회복지를 퇴보시켰으며 수많은 실업자를 양산해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은 1984년 대대적인 탄광노조의 파업을 강경 진압하면서 얻은 별명이었습니다.

영화 <철의 여인(The Iron Lady, 2011)>도 개봉 당시 마거릿 대처만큼이나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영화 속 대처의 고백처럼 '매일 전쟁을 치르는 삶'을 보낸 여성 리더의 삶과 고뇌를 그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처 전 총리를 완벽하게 연기한 메릴 스트립은 이 영화로 세 번째 오스카상의 영예를 안았죠.

영화 <철의 여인>의 한 장면. (사진 출처=필라멘트 픽처스)



하지만 흑평도 줄을 이었습니다. 대처리즘의 어두운 상흔을 다룬 영화 <빌리 엘리어트(2001)>와 대조되며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불러온 인물을 지나치게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죠. <빌리 엘리어트>는 뮤지컬로도 인기를 얻었는데 엘튼 존이 작곡한 '메리 크리스마스 메기 대처'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오늘을 축하해. 당신(대처)이 죽을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으니까."

대처 집권 시절 무자비하게 추진됐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민영화, 파업 광부들에 대한 양보 없는 태도, 공공지출의 대폭 삭감 등은 시장과 부유층의 지지를 받았지만,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계급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감상하

기 위해서는 대처에 대한 평가, 혹은 이 영화에 대한 엇갈린 정치적·사회적 평가를 잠시 유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처는 여성이지만, 페미니스트는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나는 여성해방에 신세진 게 없다(I owe nothing to Women's Lib)"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여성 리더를 다룬 대표적인 영화 중 하나로 꼽는 것은 그것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리더라면 누구나 겪었을 인간적 고뇌와 고독을 그려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카메라의 초점을 맞춘 것인데요. 관객은 자연스럽게 '여성' 리더가 아니라 여성 '리더'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진실을 위한 대담한 선택 <더 포스트>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71년, 뉴욕 타임스의 특종 보도로 미 전역이 발칵 뒤집힙니다. 트루먼으로 시작해 아이젠하워, 케네디, 존슨에 이르는 네 명의 대통령이 30년간 감춰온 베트남 전쟁의 비밀이 폭로된 것입니다. 경쟁지인 워싱턴 포스트에도 비상이 걸립니다. 역사적 특종을 놓친 언론사의 운명은 답이 뚜렷했으니까요. 베트남 전쟁의 진실이 담긴 기밀문서 '펜타곤 페이퍼' 입수에 사활을 걸고, 결국 4,000장에 달하는 문서를 입수하게 됩니다.

닉슨 정부는 기밀문서 내용을 보도할 경우 간첩죄로 기소하게 될 것이라는 협박과 함께 증거거래소 상장을 앞둔 워싱턴 포스트를 상

영화 <더 포스트>의 한 장면. (사진 출처=CGV아트하우스)



“

여성이 아니라
한 사람의 리더로
주인공을 봐!

”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한 장면. <사진 출처=(주)퍼스트런>

대로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첫 여성 발행인이자 사주인 캐서린 그레이엄(메릴 스트립)은 고뇌에 빠집니다. 편집국장인 벤(톰 행크스)을 필두로 한 기자들을 믿고 진실의 편에 설 것이냐, 기울어 가는 신문사를 회생하는 길을 갈 것이냐. 캐서린은 결국 진실의 편에 서기로 결심하고 발행을 감행합니다.

영화는 크게 두 가지에 주목합니다. 언론의 책무와 여성 발행인의 용기. “기사의 질과 수익은 함께한다”는 신문 발행인 캐서린과 “논조는 내가 결정한다”는 편집국장 벤이 언론과 워싱턴 포스트를 바라보는 지점은 사뭇 다릅니다. 고민의 깊이와 방식도 다릅니다. 벤이 특종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기자들에게 여러 지시를 내리느라 바쁜 그 시각, 캐서린은 자신들이 국가를 좌지우지한다고 믿는 ‘힘센 남자’들을 상대로 협상하고 로비 활동을 펼칩니다. 침대 위에 온갖 서류를 쌓아 놓고 보다 잠들고, 자신의 집에서 파티를 열어 남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조금씩 영역을 넓힙니다.


맞서 싸워야 할 때 싸우고, 정면돌파를 선택하는 캐서린의 모습 역시 ‘철의 여인’ 만큼이나 강인한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합니다.

실제 아버지로부터 워싱턴 포스트를 물려받은 캐서린 그레이엄(1917~2001)은 ‘정론의 길을 터준 신문 발행인’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메가폰을 잡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이 영화에 관해 이렇게 말했죠. “이 영화를 통해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이전의 사회를 다뤄보고 싶었다.” 여성들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이전에도 캐서린과 같은 여성 지도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영화는 보여줍니다.

☞ 여성이 아니라 한 사람의 리더로

두 영화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교롭게 최고의 여성 배우로 꼽히는 메릴 스트립이 주인공 역할을 맡았다는 점인데요. 게다가 실존 인물과 실제 사건을 다뤘다는 점도 같습니다. 내친김에 메릴 스트립이 열연한 또 한 편의 영화를 살펴볼까요? 앞선 두 영화와는 결이 다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The Devil Wears Prada, 2006)>인데요. 영화 초반 주인공 앤디 삭스(앤 헤서웨이)가 심각한 얼굴로 신문을 들춰봅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신문 헤드라인 카피, ‘명품은 왜 페미니즘의 적인가?’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난 패션 잡지의 편집장 미란다(메릴 스트립)는 신입직원에게 그야말로 악마와 같은 존재입니다. 패션계의 큰손답게 옷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맹신하는 캐릭터입니다. 동시에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리더죠. 명품과 유행을 권하는 영화인지,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라는 영화인지 헷갈리지만, 영화 후반부로 갈수록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영화입니다. 어느새 악마 같은 상사이자 리더인 미란다가 매력적인 인물로 다가오죠. 영화에서도 앤디와 미란다는 설명할 수 없는 우정과 공감을 나누게 됩니다.

앤디는 누군가 미란다를 비난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네, 거친 면이 있긴 하죠. 하지만 미란다가 남자였다면 사람들은 유능하다는 사실 외에는 신경 쓰지 않았을 걸요?” 이 대사는 영화 관객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영화 <철의 여인>에서의 대처, <더 포스트>에서의 캐서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의 미란다가 남성이었다면, 이 영화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그래서 여성 리더를 다룬 좋은 작품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성이 아니라 한 사람의 리더로 주인공을 봐!” 

왜 최초의 여성 조각가는 법정에 서야 했을까?

르네상스 유일한 여성 조각가, 프로페르치아 데 로시

김인희 | 인문학 강사, 프리랜서

*Properzia de
Rossi*



아마존과 헤라클레스, 프로페르치아 데 로시(1490~1530), 1520년 경, 대리석, 피렌체 베키오 궁 소장. 이 작품에서 데 로시의 뛰어난 인체 묘사 능력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그녀는 음란한 여자라는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1



2



3

- 1 그라시 가문의 문장, 프로페르치아 데 로시 은세공에 과일 씨앗, 1510년 경, 볼로냐 치비코 중세 박물관 소장, 데 로시도 처음에는 이같은 공예품을 만드는 공예가로 시작했다.
- 2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 파사드의 장식 패널 부분, 프로페르치아 데 로시, 1526년, 대리석, 볼로냐의 산 페트로니오 성당 박물관 소장, 데 로시의 대표작으로 그녀에게 명성과 함께 남성작가들의 견제를 불러 온 작품이다.
- 3 죽은 그리스도를 애도하는 성도들, 폴리세나 벨리, 16세기 중반, 유화, 이탈리아 산 마르코 박물관 소장, 여성이 르네상스 시대의 첫 작품

최초의 여성 조각가, 폭력 사건으로 기소되다

1525년 어느 날, 이탈리아 볼로냐의 화가이자 조각가인 아미코 아스페르티니는 얼굴에 물감통을 뒤집어 쓰는 봉변을 당했다. 뒤이어 그는 사납게 달려드는 누군가와 큰소리로 다투며 옆치락 뒤치락 몸싸움을 벌였는데, 놀랍게도 그에게 이런 폭력을 행사한 이는 그보다 한참 젊은 여성이었다. 집에서 난데없이 봉변을 당한 아스페르티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남자가 창피하게도 여자에게 맞았다는 소리를 듣는 걸 감수하면서도) 그녀를 주거침입과 폭행죄로 기소했다. 사건의 피

의자인 여성의 이름은 프로페르치아 데 로시(1490~1530)로, 그를 고소한 아스페르티니와 같은 미술가였다.(다만 그녀의 주력은 그림이 아닌 조각)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를 통틀어 조각 예술에, 그것도 여성으로서는 유일하게 이름을 남긴 그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불미스런 일로 당대의 법정기록에도 이름을 올렸다. 사실 데 로시가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미 5년 전인 1520년에도 주거침입에 개인 정원의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과가 있었던 것이다. 관련 재판에 '성질이 매우 거친 여자'로 기록된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의 미술가들은 갑자기 넓어진 미술 시장의 부흥에 따라 신규 미술가들이 대거 유입되었는데, 일군의 여성 미술가들의 등장도 그에 따른 것이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 남성이었던 기존의 미술가들은 이들 여성 미술가들을 자신들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여 대단히 적대적인 자세를 취했다. 데 로시는 그나마 여성 미술가들이 주로 종사하던 그림이 아닌 조각 분야에 진출했고, 더구나 다른 여성들처럼 작은 목재 조각을 하는 공예가가 아니라 거대한 대리석을



주로 다루는 조각이었기 때문에 딱하게도 이런 적개심의 표적이 된 것이다.(물론 처음에는 그녀도 공예가로 시작했으나 곧 조각 분야로 진출) 게다가 얼마 전에는 대성당의 공모전에 응모하여 당당히 작품 주문을 따내기까지 했던 것이다.(1526년 산 페트로니오 성당의 파사드 장식 부분 담당) 이는 곧 주변의(남성)미술가들을 대표하는 아스페르티니의 적지 않은 경계심과 적의를 불러왔고, 그 결과가 바로 저 폭력 사건이었던 것이다. 당대의 미술가 전기를 쓴 바사리는 그의 저서에서(그는 예술가 열전에 데 로시를 비롯한 4명의 여성 미술가들을 포함시켰다)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아스페르티니는 데 로시의 성공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그는 그녀에 대해 남자관계가 몹시 복잡하고 문란한 여자라는 등의 좋지 못한 소문을 냈는데 그녀의 조각 작품에서 나타

나는 뛰어난 인체 구현 능력이 모두 남성 누드 모델과 함께 작업한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그 때문에 데 로시의 작품은 아주 험값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안 좋은 소문 덕분에 작가의 평판이 떨어지자 덩달아 작품 가격까지 추락했다는 얘기였다. 결국 이런 더러운 소문 때문에 아예 작품 주문이 안 들어오는 상황까지 가지 분노한 데 로시가 이 비겁한 경쟁자를 직접 응징하려 갔던 것이다.

치열했던 미술가들의 경쟁의식이 여성 미술가의 발목을 잡다

사실 어느 업계도 그렇지만 이 시절 미술가들의 경쟁의식은 치열했다. - 이탈리아의 프레스코 화가들은 알프스 북쪽의 유희를 전문으로 그리는 화가들을 두고 ‘그림도 제대로 못그리는 놈들’이라고 비난할 정도였다 - 이에 따른 예술가 개인들끼리의 경쟁의식도 대단

했는데, 미켈란젤로를 비롯한 르네상스 3대 거장이 서로를 (실력이 없다고)비난한 사실은 유명한 일화다. 특히 미켈란젤로가 자신이 받은 교황청의 주문이 ‘조각’이 아니라 ‘그림’이라는 것이. 실상은 자기를 망신주려는 동료 미술가의 계략 때문이라고 노발대발했다는 일화나 시스티나 성당 벽화를 자기 혼자 힘으로 그린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거나(엄연히 조수들을 고용했음에도!) 까마득한 후배 화가 라파엘로가 자기의 그림을 베껴서 그린다고 비난해댄 사실만 봐도, ‘신적인 기예를 갖춘 예술가’라는 평판을 들은 사람의 품위에 걸맞지 않은 이 같은 언행에서 당대의 치열했던 경쟁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데 로시 같은 여성 미술가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은 이들 남성 예술가들끼리 서로 비난을 했던 것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바로 이는 남성에 비해 취약한 여성의 처지(남자에게는 성적 방종을 부추기면서 여자에게는 정조를 요구하는 도덕의 이중성)를 이용한 비겁하고 추잡한 행위였다는 것이다. 남성 미술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기 위한 누드 모델 대상이 자연스럽게 권장되기 시작하던 시절, 더구나 미술에서 영웅적인 남성 누드상이 최고 경지의 예술품으로 격상되던 시절에(도나텔로와 미켈란젤로의 작품들을 보라) 정작 그런 작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 여느 남성 못지않게 노력하고 연마하여 최고의 실력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은 여성 미

“

남성과 여성도 성에 따른
귀천이 있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이는 신의
뜻이라는 교회의 가르침이
당대의 성 의식을 규정했다

”

술가에게 기다리는 것은, 어처구니없게도 ‘음란한 여자’라는 비난과 함께 작품 가격의 추락이었던 것이다.

16세기 초반, 오늘날과 같은 남녀평등의 인권의식이 없던 시절의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 차이를 일종의 신분제도와 같은 것으로 생각했다. 귀족과 평민 그리고 노예가 있는 것처럼 남성과 여성도 성에 따른 귀천이 있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이는 신의 뜻이라는 교회의 가르침이 당대의 성 의식을 규정했던 것이다. 이 같은 환경에서 남성과 동등한 의식을 갖거나 교육을 받아 사회에 진출하는 여성들은 극히 드물었고 있다고 해도 데 로시가 겪어야 했던 것 같은 혹독한 사회적 비난이 그녀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중세와 르네상스의 여성 미술가들이 처한 현실과 그 장벽

물론 중세 시대에도 여성 화가들은 있었다.(대표적으로 10세기 경의 스페인의 엔데와 12세기 독일에서 활동한 구다 그리고 힐데가르트 폰 빙엔) 이들은 모두 수도원의 수녀들로, 적지 않은 남자 수도사들이 화가였던 것처럼 그들만의 금남의 구역에서 여성 예술가로서, 화가로서 활동했다(주로 성경과 기도서에 수록되는 채색삽화들) 중세의 관념에서 인간의 벗은 몸은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어서 이 시절 화가들은 주로 지옥도를 그릴 때 누드를 등장시켰다. 그러나 세월이 흘렀고 지난 천년의 중세는 막을 내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인 르네상스의 물결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 새로운 시대에 인간의 벗은 몸은 고전 시절(그리스/로마)의 정신을 반영하는 이상향이 되어 이제는 죄악이 아닌 도덕의 상징으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수난을 그려내는 신성한 매개체가 되었다.(주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벌거벗은 신과 영웅상에서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예수의 도상이 비롯됨) 이는 데 로시를 비롯한 이 시대의 여성 미술가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장이 되었다. 미술 시장에서 작품이 당당히 거래되는 미술 전문가로 성공

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인체를 자연스럽게 구현하기 위한 누드 데생은 꼭 거쳐야 하는 관문이었고, 이를 체득하지 못한 미술가는 실력 없는 작가로 밀려나는 건 정해진 수순이었다. 이 시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체를 그리는 것에 도전한 두 명의 수녀화가의 작품을 보면 이 같은 당대의 경향이 여성 미술가들에게 끼친 영향을 알 수 있다.(이탈리아 파비아의 수녀 안드리올라 바라키스와 피렌체의 수녀 폴리세나 넬리1523~1588) 두 사람의 작품 모두 누드 데생을 하지 못해 인체의 구현이 상당히 부자연스러움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두 여성 화가의 작품은 남자 화가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떨어지는 실력이라는 평을 받아야 했고, 넬리 수녀의 경우는 여자 그리스도를 그린 것이냐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다. 넬리 수녀의 인체 데생이 모두 여성 누드 모델을 기반으로 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녀의 작품은 남자 인물들도 모두 여성 인물을 기초로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데,(수녀라는 신분에서 남성 누드 모델을 기용한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임으로)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서 위대한 여성 미술가가 나온다는 건 진정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을 것이다.

목숨과 맞바꾼 예술적 성취

그러나 프로페르치아 데 로시는 그 일을 해냈고(그녀의 작품을 봤을 때 여성은 물론이고 남성 누드 모델을 기용한 것 역시 확실해 보인다) 결국 혹독한 댓가를 치렀다. 1530년 전염병이 볼로냐를 휩쓸었을 때 세상을 떠난 그녀에게 남은 건 빛독촉을 하는 청구서 뿐이었다. 그녀는 병원비도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가도 예술은 남는 것. 그녀가 파산한 채로 세상을 떠난 바로 그해, 교황 클레멘트 7세가 그녀에게 작품을 주문하는 초청서를 보냈다.(교황은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몰랐다) 비록 시기는 늦었지만 프로페르치아 데 로시는 모든 당대 미술가들의 꿈이었던 교황청의 주문을 받았던 것이다. ㉓



④ 그리스도의 장례식, 안드리올라 바라키스, 15세기 말, 이탈리아 파비아의 말라스피나 미술관 소장

⑤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 그리스도, 프로페르치아 데 로시, 1510년 경, 목재 패널, 볼로냐 치비코 중세 박물관 소장

⑥ 구다 수녀, 이나셀D 속의 자화상, 12세기, 채색삽화,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립 도서관 소장

⑦ 엔데 수녀, 베아투스 게시몽 중 지옥, 채색삽화, 975년, 스페인 게로나 성당 소장, 여성이 그린 것으로 확인되는 최초의 누드 그림, 지옥에 빠진 인간의 영혼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버티고 이겨내는

대전 여성들의 이야기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코로나 19’ 재난이 여성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을 가중시켰는지,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는지 직접 듣는 아이디어 발굴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나선 여자들」 프로젝트는 20~40대의 지역 여성들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통해 재난 상황에 더 취약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개선책을 모색했다.¹⁾ 4개월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프로젝트에 참여해 준 5인의 평범한 대전 여성들에게 감사드리며, 어쩌면 나의 모습일지도 모를 이들의 이야기를 공유한다.

우리가 마주한 재난, 코로나 19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나선
여자들**



윤민영

“어려여(女力女) – 여성이 여성을 돕는다”
여성 기술자 양성으로 1인가구 여성의 안전 확보와 성별고정관념의 해체를 동시에

권순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전형 돌봄교사 지원정책”
재난의 시기에 필요한 아동의 사회적 돌봄과 돌봄의 주체인 여성의 공존방안 필요해

엄숙희

“코로나 19 대응 ‘여성 생(生)활 기(技)술 아카데미”
걸림돌에서 디딤돌로. 일상생활에서 여성의 자립성을 높이고 다양한 전문기술 교육과정을 통해 취업과 창업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공혜영

“대전 여성예술인 창작활동 및 콘텐츠 제작 지원”
코로나 19를 계기로 지역 여성 예술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임다운

“걸스(Girls)온택트(Ontact) 상담소”
여성 청년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플랫폼 구축과 여성 상담사 활용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까지

1) 스스로 찾아 프로젝트의 자세한 내용은 대전세종연구원 홈페이지(www.dsi.re.kr) 참고.



“여력여(女力女)”를 넘어

윤민영

나에게 ‘집짓기’란 단순 집을 소유한다는 행위 그 이상이다.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봄으로 어떤 미지의 세계로 한 발 더 내딛을 수 있다는 것에 가깝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 또한 그럴 것이라 확신한다. 여성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았던 혹은 진입하더라도 남성 중심적 문화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 해야 할 영역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여성의 공간을 만드는 건 중요하다. 특히 국가의 지원 아래 비혼여성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해 선례를 남겨두는 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진행한 코로나 시대 지역 여성들을 위한 재난 대응 아이디어 발굴 프로젝트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여자들>에서 <여력여(女力女)>의 존재는 소중했다. 대부분의 복지 시스템이 정상 가족, 특히 ‘어머니로서의 여성’에 맞춰져 있는 현 상황에 여성들을 위한 숨구멍이 필요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공공 돌봄 서비스들이 멈추고 전통적인 방식으로의 돌봄으로 회귀하는 상황에서 20대 비혼 여성인 나는 ‘돌봄’으로만 돌고 도는 여성 지원책들을 바라보기가 힘들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슬랩’ <90년대생 여성들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영상에는 가족 중심의 복지 정책이 늘어날수록 청년여성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국가가 ‘비혼’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는 이상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위치는 ‘어머니’로만 수렴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더 <여력여(女力女)> 프로젝트가 실현되길 바란다. 플랫폼을 통해 여성들에게 공구를 빌려주고 집을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며 여성들을 젠더폭력에서 보호하는 것만이 <여력여(女力女)>의 전부가 아니다. 더 큰 잠재능력을 품고 있다. 사회가 다양한 여성의 모습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기쁨을 칠하는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다. 프로젝트 발표를 할 때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



1 젠더 폭력에 취약한 여성 1인가구 보호

2 1인가구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3 여성가구의 주거환경 수리 도움

중 하나는 “건설 현장이 여성들에게 안전한 일자리가 될 수 있을까?”였다. 여성 건설노동자들은 각종 추행과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위험들이 여성의 진입을 막는다. ‘여자는 할 수 없다.’ ‘여성은 어머니가 될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에 중책을 맡길 수 없다.’는 통념이 우리 사회를 경직시키고 여성 청년들이 살기 힘든 공간으로 만든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돌봄 문제’의 해결만은 아니다. 더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를 수용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지원되었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 여성이 여성을 돌본다는 의미의 <여력여(女力女)>를 넘어 개인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의 주도적으로 다양한 지원책들을 발굴해야 한다.



여력여(女力女)

주택수리 서비스(like-us)의 시스템을 차용 1인가구 여성들에게 ‘여성 수리기사’를 파견하고 공구 사용법을 교육하는 플랫폼.

다양한 젠더폭력에 노출된 1인가구 여성의 안전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여성들의 기술적 자립을 도모함. 주택수리, 기술교육, 여성기술자네트워킹, 강연등 개최



나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권순지

그날은 옷장에서 반팔을 꺼내 입어야 할 만큼 갑작스러운 더위가 찾아온 봄날이었다. 나는 아이들 점심 준비를 중단한 채 그늘지고 좁은 방에 누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뒤따라 방에 들어온 아이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내게 말없는 질문을 하고 있었다.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어나 가라는 손짓을 하니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보던 와중 전화가 걸려왔다. 당장 전화를 받을 수 없어서 계속 울리는 벨 소리에 두 아이는 다시 방문을 열어 얼굴을 내밀고는 목소리를 내어 물었다. “엄마 전화 안 받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숨을 가다듬었다. 아이들이 다시 자기들끼리의 놀이에 빠져 내게 무심해져 있는 사이, 다시 숨을 바로 쉴 수 있게 된 나는 검색 창에 ‘숨이 잘 안 쉬어져요’라는 문장을 입력했다. 스크롤을 내리면서 ‘호흡곤란’, ‘공황장애’, ‘과호흡’, ‘스트레스’ 같은 말들을 계속 마주했다. 그 말들을 보고 있자니 다시 가슴에 돌무더기가 내려앉는 느낌이라 서둘러 인터넷 창을 닫고 부재 중 통화 목록을 확인했다. 대전 인근 소도시로 귀농한 남편의 선배들이 내가 사는 아파트 정문에 딸기를 팔러 온다는 소식이었다.

집 밖을 나서는 동시에 여름옷을 입지 않은 아이들과 내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봄은 곁에 왔다고 느낄 새도 없이 가버린 것 같았다. 딸기 박스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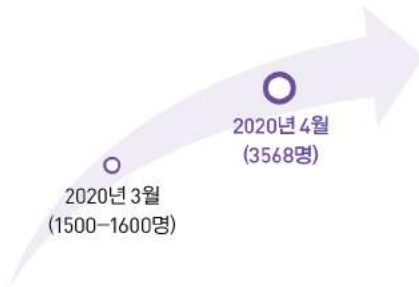
식탁 위에 내려놓고 보니 박스마다 “코로나 19 극복! 급식 농가들을 도와주세요!”라는 문구를 인쇄한 종이가 붙어 있었다. 코로나 재난이 농가까지 손을 뻗치던 시기, 나 역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둠을 걷는 기분으로 매일을 버텼다. 과호흡, 딸기, 떨어진 꽃잎, 봄인지 여름인지 모를 계절. 이런 단어들과 함께 그 날을 떠올린 건, 아마도 그즈음이 내 돌봄 스트레스가 최절정에 다다른 시기였기 때문일 것이다. 코로나 확산과 동시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여덟 살 아이와 일곱 살 아이를 둔 엄마이자 대학원생이며 프리랜서 작가인 나는,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이 돌봄이 가능한 사람이기도 했다. 물론 가정 돌봄이 가능한 아이도 긴급 돌봄에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하였으나, 나는 첫째와 둘째 모두 긴급 돌봄을 신청하지 못했다. 집에 있을 수 있는 내가 굳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는 외부 환경에 아이들을 맡기면 안 될 것이란 생각과 긴급 돌봄 교실은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돌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점점 수면의 양과 질은 낮아졌고, 주말을 제외한 매일의 24시간을 아이들과 부대끼며 보내는 기간이 지속되면서 스스로를 돌볼 여유 없이 몸과 마음은 쇠약해졌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공적 돌봄의 부재는, 모성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렇다고 가정에만 머무르고 싶지 않은 내게 더욱 큰 갈등과 고통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던 와중 참여하게 된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의 지역 여성을 위한 재난 대응 아이디어 발굴 프로젝트는 ‘돌봄’을 주제로 하여 나에게만 머물러 있던 시선을 돌려 수많은 지역 여성을 돌아볼 수 있게 했다. 국가는 아이를 낳으라고는 하지만 태어난 아이의 돌봄에 있어서는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돌봄의 사적 영역인 가정에서도, 공적 영역인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도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여성은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다. 나는 공적 돌봄 노동자의 세계가 지금보다 더 좋은 여건에 놓일 수 있게 된다면, 사적 돌봄 노동자인 여성 개인의 삶도 나아질 것이란 생각을 했다. 그런 작은 희망을 품고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초등 돌봄전담사를 위한 정책 제안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나의 우울증세는 여전하다. 엄마인 나를 대체할 가정 내 양육자는 나보다 더 바쁜 남편뿐이고 이러한 현실 속, 내 돌봄의 무게를 나눌 수 있는 곳이 아이의 학교일지 한 번도 보내보지 못한 학원일지 아니면 내가 생각해내지 못한 가능한 다른 곳이 있을지 아직은 가능하지 못하겠다.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이 매일을 버티며 사는 지금, 이젠 나를 돌볼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만이 내게 분명하게 다가온다.

대전 초등학교 긴급 돌봄 참여 현황



정책 제안

- 대전 149개의 초등학교 전일제(8시간)/시간제(4시간) 돌봄 전담사 대상
- 지역 돌봄전담사 시간제 철메 및 전일제 채용 확대
- 생활 임금 조례에 근거한 돌봄전담사 기본급 책정
- 재난으로 인한 긴급 돌봄 업무 시 보상수당 지급
- 마스크, 손 소독제, 안전 매뉴얼 등을 포함한 안전 키트 제공
- 돌봄전담사에서 돌봄교사로의 명칭 변경



겨울 그리고 또다시 겨울

엄숙희


겨울 — 학위 논문을 마치고 2020년을 맞이 하면서 무엇을 새롭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후유증을 앓고 있었다. 2월에 학위수여식이 있어 비용을 들여 졸업 가운과 박사모를 미리 빌려 놓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 나를 마무리라 생각했던 졸업식마저 취소되면서 아쉽게도 가족사진을 찍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다. 아이가 손을 다쳤다든 갑작스런 전화에 너무 놀라서였는지 교통사고가 나면서 대략 3주 정도 버스와 택시를 번갈아 타고 다녔다. 덕분에 걷기 운동을 많이 했지만, 새삼 겨울은 정말 춥게 느껴졌다.

봄 — 아침에 눈을 뜨면 교육부 자가진단 앱을 열어 아이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어느 곳을 가든 삼엄한 분위기에서 마스크와 체온상태를 체크하며 “대구·경북 지역에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기침과 열이 있으세요?” “가정에 자가 격리자가 있으세요?” “최근 해외여행 사실이 있으세요?” 등의 질문으로 바이러스의 감염여부를 가려내기 바쁘다. 잠시 재채기라도 하게 되면 주위는 따가운 시선과 경계로 기피하는 대상으로 분위기가 조성된다. 이제 마스크 착용은 안경을 끼듯 자연스러움이 묻어난다. 신기한 것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도 그 사람의 눈빛만으로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 버렸다. 봄은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갔다.

여름 — 올 여름은 유난히 길고 힘들었다. 코로나19로 집안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길어서 그랬고, 장마가 긴 탓에 예년의 여름은 상상할 수 없었다. 휴가철의 풍경과 극장에서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보던 일들도 올해는 전혀 기억에 없다. 다만, 집콕을 하며 영화를 보았더니 통신비 지출이 많아졌다. 기억에 남는 것은 긴급재난지원금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대표로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세대주가 의사결정권을 모두 갖고 있어 세대 구성원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 집 세대주가 내 의견과는 상관없이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해서 어렵게 원점으로 돌리긴 했으나 세대원에게 무기력함을 느끼게 해줬다.

가을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의 지역 여성을 위한 재난 대응 아이디어 발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누군가 강제하지는 않았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사회적 책무로 느꼈기 때문이다. 대전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정책발굴을 하는 프로젝트였는데, 나조차도 관심 밖이었던 여성 기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동안 나 자신만의 고민이라 생각했던 문제들이 다른 여성들도 느끼는 것이었음을 알게 되고, 함께 공유하고 찾아 나서면서 의미 있는 정책을 발굴해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자료를 찾다보니 여성들이 배제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는 것에 다시 놀랐고, 그래서 뭐라도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에 더 시간을 할애하여 참여했던 것 같다. “여성은 재난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젠더 때문에 죽는다.”고 한다. 재난 상황에서 젠더적 관점을 기반으로 한 여성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꼭 필요하다.

겨울 — 초기엔 몇 달 뒤면 사라질 것 같았던 코로나19 팬데믹이 벌써 1년이 되어간다. 다시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여전히 국내와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다시 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실 개인적으로 19년째 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과 환경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된 점도 많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2021년을 맞이하려 한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않아도 환하게 웃을 수 있는 2021년 봄날을 기대한다. 



코로나19 대응 “여성 생(生)활 기(技)술 아카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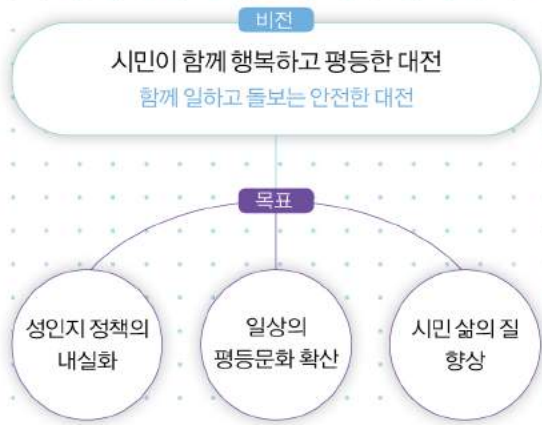
‘기술에 무지한 여자’가 아니라
‘여자에 무지한 기술’에서 벗어나는데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생활기술 교육 필요성 증대
- 사적 서비스 영역을 공공서비스로 전환
- 취업, 전문기술자 양성과정을 통한 여성창업지원과 여성 대표 발굴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기술교육 및 일자리 연계와 창출 효과



대전시 성인지 정책 한눈에 보기

대전시는 “시민이 함께 행복하고 평등한 대전” 실현을 위해 성인지 정책 전담 부서를 2019년 신설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년 동안 대전의 성인지 정책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본다.



#1 2019~2020 성인지 정책 추진 성과

1. 성인지정책 추진체계 마련

- 전담부서(성인지정책담당관, 성인지팀 / 2019.1.1.) 신설 및 전문 인력 채용, 관련 조례 제·정비
- 2019~2020 성인지정책 기본계획, 여성친화도시 5개년 기본계획, 여성폭력방지 시행계획,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마련 계획 등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



2.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성차별 원인 개선

- 성별통계 및 성별균형참여, 성별특성 반영, 성별관점 개선 등으로 2019년 54건 개선 2020년 34개 과제 개선
- 여성범죄예방을 위한 유개승강장 내부조명 설치 (40개소), 민원실 비상벨 설치, 민원서류 작성대 모서리 개선, 한발수목원 어린이 물놀이장 불법카메라수시점검 및 모성보호실(수유실) 설치 등

3. 성평등한 조직문화 만들기

- 직원이 참여한 성평등한 조직만들기 10대 과제 선정
- 직장내 성차별적 언어 및 행동변화 지침 100가지 마련
- 4급 이상 간부와 함께 성인지감수성이 녹아드는 법상 만들기



4. 성인지교육 의무화로 성인지감수성 향상

- 성인지교육 이수 강화: 전직원의 2019년 40% → 2020년 80%이상 → 2021년 100% 달성(목표)

5. 여성 경쟁력 향상을 위한 취업 지원 및 여성인재DB구축

- 여성인력개발센터, 세일센터(3개소) / 2019~2020.10.(6,161명 취창업)
- 여성인재 500여명 발굴, DB구축으로 체계화 및 공공분야 참여 유도



6. 여성폭력피해자 유형별 보호 및 맞춤 지원

- 18개소 여성권익증진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지원,
- 젠더전문가가 찾아가는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초기 고충상담 핫라인 개설 (20.8월)
- 성매매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 시민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실시
- 디지털 성범죄 예방체계 구축 (유관기관 간담회, 토론회, 조례 제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7. 시민 참여와 소통의 창구

- 젠더공감 2030 청년활동가 사업을 통해 지역내 청년 젠더 활동가 양성 및 취업지원
- 청년과 함께하는 성주류화 전략실천 모니터링 진행
 - 대전시 및 5개구 홍보물 대상 성차별적요소 모니터링
- 양성평등 큐레이터, 여성단체 임원, 여성폭력, 성폭력 교육 활동강사, 중장년 남성 성평등 보이스단 등과의 교류를 통해 각 분야별 시민참여 협력체계 구축



#2 앞으로 대전시는

1. 양성평등담당관제 도입과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통한 성인지 정책총괄·조정추진체계의 확립
2. 분야별 시민 참여 거버넌스 구성으로 정책이해도 증진
3. 여성육성및일·생활균형인프라 구축
4. 폭력 유형별 맞춤지원 및 생활밀착형 지역안전망 구축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 조성



누가 쓰라고 한적 없지만
 내 글을 읽고 '나도 그래'라고
 말해주는 사람 있어서 또 쓰게 된다.
 마주한 상황이 준 감정을
 당신도 느꼈으면 하니까,
 기쁨이나 분노의 색깔과 모양은
 다 다르지만, 함께 하면 지구를
 삼킬만큼 커진다.
 외롭지 않기 위해, 우리가
 우리 모두의 용기가 되기 위해
 대전에서 쓰고 읽는 여성들을
 지금 만난다.



꺾이지 마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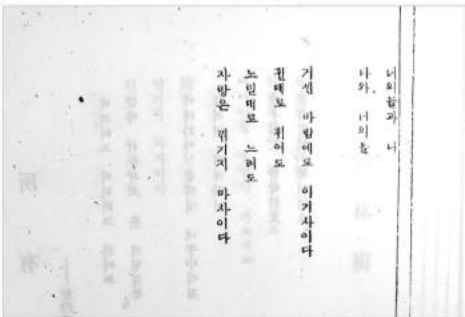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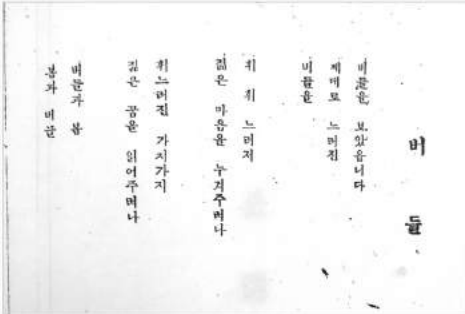
김호연재, 한덕희 그리고 우리의 글 이야기

이유진 | 젠더공감 2030 청년활동가

“네 일기도 책으로 나오지 누가 알아, 그러니까 잘 좀 써봐.” 일기 쓰기 속제는 미뤄두고 ‘안네의 일기’를 읽던 나에게 엄마가 그랬다. 아무렇지 않은 척 넘겼지만, 빈 일기장을 앞에 두고 자꾸 ‘그렇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독자들을 염두에 둔 일기를 썼다. 그러나 ‘영어로 써야 하나?’ ‘번역해주겠지?’ ‘독자들이 이것 읽고 나를 나쁜 애라고 생각하면 어찌지?’ 등의 고민 끝에 결국 일기 쓰기를 그만뒀다. 대신, 다른 사람들의 일기를 읽고 싶어졌다. 다행히 모든 글은 조금씩 일기 같아서 나는 마음껏 읽기만 하면 됐다.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면 편했겠지만, ‘#문단_내_성폭력’ 해시태그를 통해 공론화된 사건들을 접했다. 어떤 남성 작가가 생리에 대해 영터리로 쓴 소설이 ‘여성적 감각으로 섬세하고 정교하게 서술한 뛰어난 작품’이라며 상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동시에 여성 작가가 여성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차별을 사실적으로 다룬 소설에 혹평이 쏟아졌다. 그렇게 누가 쓰느냐에 따라 문학으로서의 의의가 착잡되기도, 사적인 기록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는 걸 깨달았다.

김호연재의 한시도 그렇다. 그의 한시는 조선 후기 가부장 사회에서 ‘글을 쓰는 여성’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대한 기록이다. 여성에게 금지되었던 호탕한 어조로 정치·사회를 이야기하기도, 대나무 평상에 누워 술에 취하고 싶다고도 하는 김호연재의 한시를 읽다 보면 내적 친밀감이 생긴다. 아내의 도리에 대해서도 김호연재는 「만일 혹 나는 실수한 바가 없는데도 다른 사람이 스스로 나를 저버린다면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¹⁾라고 말한다. 김호연재의 한시는 존재만으로도 가문의 누(累)가 되었다. 그러나 증손부

1 「自修章 第四」, 「自警篇」(『자수장 제4』, 『백경편』)
 2 한문을 한글로 풀어쓴 시
 3 종이를 쓰는 것조차 가까운 책에 수여하는 가상의 상(賞)
 4 한덕희, 沙漠(사막) 중에서



위_한덕희, '버들' 출처: 대전문학관

아래_한덕희, 시집 '북소리' 표지 출처: 대전문학관

“

그러나 구름우에는
햇빛이 있는걸 밭도서
沙漠(사막) 저-편에는
호화로운 世上(세상)도 또한 믿어⁴⁾

”

(증손자의 아내) 청송 심씨등이 한시를 읽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해 '언해시'²⁾로 번역했고, 규방의 여성독자들은 이를 필사, 전승했다. 지금 우리가 읽는 그의 시는 김호연재와 당시 여성들의 공동창작물이기도 한 셈이다. 정말 좋은 글을 발견했을 때, 받아적고 싶은 감정을 규방에서 느꼈으리라 생각하니 마음이 자릿하다.

해방 이후, 대전·충청권에서 최초로 개인 시집을 낸 시인, 한덕희가 시집을 내겠다는 뜻을 밝혔을 때 '동백사회'의 동료·선배 시인들은 시집을 내기에는 아직 미숙하다며 만류했다. 그러나 한덕희는 뜻을 굽히지 않고 사비를 들여 1947년 개인 시집인 '북소리'를 출간한다. 시집에 실린 정훈 시인의 서문은 '한양의 시집을 세상에 내어놓기는 아직 일른 느낌이 있다.'로 시작하여 '그의 걸음은 정확할 것이며 앞날이 먼 이 규중시인은 반듯이 우리 시단에 황홀한 빛을 던지리라'로 마무리되지만, 사비를 들여서라도 시집을 내고자 했던 한덕희 시인이 '북소리'를 출간한 후에 어떤 창작 활동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알 수 없다.

나도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여전히 나의 글을 내놓는 것은 마치 일기를 펼쳐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기분이다. 하지만 나올 때마다 구매하던 독립출판잡지에서 '대학 내 이성애주의'를 주제로 원고를 모집하며 짐필진이 되면 책과 굿즈를 준다가에 무작정 글을 썼다. 그리고 얼마 뒤 내 글을 신기로 했다는 답장을 받았다. 들뜬 마음에 5권 더 사서 주변 친구들과 나눠줬더니 '사실 나도 쓰긴 쓰는데...'하고 이야기를 꺼내는 친구들이 생겼다. 하지만 '나무야 미안해 상'³⁾을 만들어서라도 주고 싶어지는 글을 쓰면서 자신을 '작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우리는 왜 글을 쓴다고 말하지도 않았을까. 혹시 '내가 그 상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아마 아닐 거다. 정말 그 상을 받을 사람들은 그런 고민조차 하지 않으니,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걸린다면, 한덕희의 '북소리'에 실린 시 '버들'의 일부를 읽고 다시 써보자.

혼자 쓰지만 같이 읽는 우리들

진행_정리_이유진, 윤소원(한남대학교)

사진_이화은

끊임없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도하며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시현, 뮤직펍 참가에 앉아글쓰기의 즐거움과 음악을 이야기하며 반짝이는 최성아, 좋아하는 작가의 이야기를 하며 즐거워하다가도 정치와 환경에 대해선 진지해지는 김정희, 대전에서 글쓰기 모임을 하거나 꾸준히 글을 쓰는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을 만났다.

시현 20대

시현의 방향이 안에서 밖으로 바뀌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여성주의 잡지「보슈」에서 운영하는 글쓰기 모임 '규방글방'에서 글을 쓰고 있는 시현입니다.

Q 글은 언제부터 쓰기 시작하셨나요?

A 어릴 때 막연하게 작가의 꿈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작가의 이미지를 동경했던 것 같아

나는 무언가에 애정을 주는 일만
세상을 극복한 힘으로 이해받았
을거라고 생각한다.

그를 사랑한 한 귀환과 쉼에 관한
그 책엔 거대한 성찰된 배경이의 오
발견이야 봐야 때문이다.

< 읽었던 책과 저음 - 시현과 김혜민
- 김혜민 작심 >

요. 입시 준비할 때는 책만 읽고 공부는 뒷전이었는데 대학생이 되니까 더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글모임을 통해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생겼죠.

Q 요즘 관심이 가는 소재는 어떤 건가요?

A 졸업하자마자 일 년간 떠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글 쓰고 그림 그리면서 여행기를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19로 이게 획은 무기한 연기됐죠.

지금은 웹툰 '정년이'처럼 페미니즘 안의 다양한 주제를 녹인 시나리오. 그동안 제 감정을 정리하려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시현의 방향이 안에서 밖으로 바뀌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Q 글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A 글방에서 처음 합평을 했는데, 내 글을 누군가에게 보여준다는 자체가 좋았어요. 내밀한 감정이 담긴 글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는다는 게 새로웠고요. 제가 잘하는 부분이나 채워나갈 부분을 알게 되면서 글 쓰는 재미도 생기더라고요.

Q 인상 깊었던 피드백이 있다면?

A 할머니에 대해 쓴 글을 읽고 모임장님이 "투박하고 기술은 부족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어서 좋다."고 하셨던 거요. 그리고 언니에 관한 글도 썼는데 "네가 좋아하는 상대한테는 애정을 다해 이렇게 길게 쓸 수가 있구나." 하셨어요. 칭찬받았던 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웃음)



Q 페미니즘을 알기 이전과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A 작년 말, 혜화역 시위에 갔었어요. 제가 원래 시위나 청원, 불매운동에 회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추운 날씨에도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서 충격을 받고 페미니즘에 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제 시선이 나 주변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이제는 확실히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끼죠.

Q 여성이 글을 쓰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터부시하는 시대에 살았으면 어땠을 것 같나요?

A 지금도 (페미니스트임을) 숨겨야 편한 경우가 많잖아요. 과거에는 더 심했을 테니까 견디기 힘들고 답답하겠죠. 말 그대로 생존만을 위한 삶이라면 사는 의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온전한 자신으로 살지 못하는 거잖아요.

Q 롤모델로 삼고 있는 작가가 있으신가요?

A 우선 정세랑 작가님 정말 사랑하고요. 글을 꾸준히 쓰고 싶어서 최근에는 이슬아 작가님의 수필집을 읽고 있어요.

Q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나요?

A 「와일드(세릴 스트레이트), 힘들 때 에너지가 차오르게 해주는 책이에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종종 찾아보곤 합니다. 「최선의 삶(임솔아), 마지막에 실린 작가님의 수상소감 인터뷰가 기억에 남아요. 제 생각과 판단을 거친 말보다는 실제로 읽어보기를 권해드려요. 「피프티피플(정세랑), 사람에 대한 애정을 느끼고 싶을 때 읽으면 좋아요.

Q 인터뷰를 마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A 최근 들어 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다녀요. 한 20개 떠들면 한두 개 정도는 실행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100일 100작(作)'도 신청했어요. 실패하면 보증금 오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당장 모레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큰일 났어요. 무엇보다도 자기 삶이 행복해야 뭐든 지속할 수 있으니, 자신을 먼저 돌보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 인터뷰를 시작으로 쪽이어나가려고요.

최성아 30대

서로의 글을 읽은 시간은
다른 시간이라곤 농도가 좀 달라요

안녕하세요. 술 많이 마시고 음악 많이 듣고 즐겁게 지내는 걸 좋아하는 나머지 뮤직펍 '올라탱고'를 차리고 운영하고 있는 최성아입니다.

Q 어떻게 글쓰기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A 반복적인 삶에서 결핍 같은 걸 느꼈는데 아는 분이 글쓰기 모임을 하신다는 걸 보고 냉큼 연락했어요. 땡겼다고 해야 하나.

작은 빗방울이
세상은 푸르게 하듯이
부드러운 것이
세상은 강하게 하듯이

작은 맘은 작은 사람들은
지켜주는 사람이 필요해.
이상은, 둥글게



올라탱고에서 책 '김지은입니다'를 나는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책을 공유하는 의미를 담고 싶어서 책의 앞장에 썼던 이상은의 노래 '둥글게'의 구절입니다.

Q 합평의 장점이라고 할까요, 합평을 통해 달라진 점이 있나요?

A 글을 더 자세히 읽게 됐어요. 예전에는 내용을 받아들이고 지나갔다면 지금은 말하고 싶은 게 생겨요. 더 즐겁죠. 지난번에 아는 분의 글을 읽고 합평처럼 감상을 전해드렸는데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글을 쓴다는 건 좀 외로운데, 제가 기다리고, 읽고 싶다고 이야기하니까, 외롭지 않다고 하셨어요.

Q 기록이나 자기표현에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글쓰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A 제가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기회가 맞아 떨어졌고, 제가 그걸 덤씩 잡았죠. 언젠가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글이 저한테 너무 거대하게 다가왔었고, 재능이 있어야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떤 기록이 되건, 쓴다는 거에 초점을 두고 시작했어요. '이걸 글이라고 말해도 되는구나.'라는 걸 나중에 느꼈죠.

Q 요즘 관심이 있는 소재는?

A 요즘은 과거의 경험을 정물화처럼 묘사하듯이 담아내는 글을 쓰고 있어요. 겪었던 당시에는 제가 미처 소화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의 제가 글로 쓰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소화가 되기도 하고 다르게 받아들여지기도 해요.

Q 페미니즘을 알기 이전과 이후, 글쓰기에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A 예전에는 말을 하지 않는 것에 더 익숙했어요. 그게 더 편하잖아요? 그런데 페미니즘을 접하면서 아무리 작더라도 저라는 개인이 목소리를 낼 때 좀 더 파장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 걸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의무감이 생긴 거 같아요. 제가 해야 할 말을 하고 그 말을 할까 말까 할 때는 하고, 더 하고.

Q 여성이 글을 쓰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터부시하는 시대에 살았으면 어땠을 것 같은지

A 지금이라고 터부시되지 않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대놓고 '여자가 무슨 글을 써'라고



뮤직펍 '올라탱고'

했다면, 지금은 '써도 돼'라고 하지만 막상 평가를 보면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 속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한다는 건 어렵죠. 그래도 다들 힘을 내서 쓰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서점 가면 알 수 있잖아요. (웃음)

Q 롤모델이나 최애 작가가 있으신가요?

A 아직은 없는데, 최애작가가 될 것 같은 분이 있어요. 박완서 작가님. 최근에 '그 남자네 집'을 추천받았는데, 읽어보니 정말 굉장한 소설이라서 작가님의 모든 책을 읽고 싶은 상태가 됐어요.

Q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A 「누군가에게는 가장 좋은 음악(서정민갑), 생소한 장르를 듣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장르가 아니군'하면서 마음의 문이 닫히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는 어느 장르건, 어느 음악이건 마음의 문이 열렸고, 뭔가를 더 좋아하게 되고 있다는 기분이 찾아들어요. 음악을 지금보다 더 좋아하고 싶다면,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요.

Q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A 글쓰기 모임을 했던 친구들이 그리워져서 연락해보면 다들 그 시간이 각별한 거예요. 서로의 글을 읽은 시간은 다른 시간이라곤 농도가 좀 달라요. 일상에서 너 운동해? 너 요즘 음악 뭐 들어? 같은 질문은 하지만, 너 글 써? 너 글 뭐 읽어? 이런 이야기까진 가지 않는 거 같은데, 그런 질문들을 일상에서 더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정희 40대

후세대가 인정해주고 출판되고 그런 작품도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의 제 인생에서도 가치를 느끼고 행복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등단 준비를 하며 글을 써 오고 있는 김정희입니다. '신춘문에준비 합평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어요.

Q 언제부터 글을 쓰셨나요?

A 20년 정도 됐죠. 칼럼도 쓰고 이것저것 쓰지는 오래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등단이 하고 싶어서 열심히 쓰고 있어요.

Q 여성시민단체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A 제가 디자인 사무실을 운영했거든요. 여성 정치네트워크 로고 디자인을 하면서 창립 멤버로 함께하게 됐어요.

흐름은 닮기도 많고, 글에 심혈을 하면서, 아예 심리 무를까지 공부하면서- 그는 도약했다. 길잡이벌처럼 변함없이 방방이여.

솔로몬의 노래 · 토니리슨



Q 요즘 관심이 있는 소재는 어떤 건가요?

A 정치나 환경이죠. 모든 게 맞물린 상황 속에서 저의 자아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되게 단편적인 개인 의 이야기지만 그 안에 모든 걸 담고 있는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이미 좋은 작품들이 많지만 제 나름대로 풀어나가려고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죠.

Q 여성정치네트워크 활동을 하거나 페미니즘을 접하면서 글을 쓸 때 달라진 점이 있나요?

A 특히 작년에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많이 배우면서 무심결에 쓰던 말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제 글이 대부분 소수자, 노인이나 아동에 대한 글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정치나 무역이나 환경도 당연히 다 맞물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시야도 넓어진 것 같아요.

Q 지금은 글을 쓰는 여성들이 되게 많잖아요. 글 쓰기 모임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런 게 금기시되는 시대에 사셨다면 어떠셨을 것 같은지여 꺾보고 싶어요.

A 글이라는 게 사람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혼자서만 보고 피드백도 못 받는다면 섬에 갇힌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너무 우울할 것 같아요.

Q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울해지신 것 같아요.

A 후세대가 인정해주고 출판되고 그런 작품도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의 제 인생에서도 가치를 느끼고 행복하고 싶어요.



독립서점 '삼요소'

Q 그러면 조금 밝은 이야기로 돌아갈까요. 롤모델로 삼고 있는 작가가 있으신가요?

A 토니 모리슨이요. 1993년도에 흑인 노벨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여성 작가인데, 문장도 주옥같고 스토리도 정말 재미있어요. 슬프고 우울하기도 한데, 진행되는 방식이 정말 천재적인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분의 작품을 읽었거든요. 인생작품을 일찍 만난 거죠.

Q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A 「책은 솔로몬의 노래», 「사랑하는 사람», 「술라». 토니 모리슨의 책은 세권 다 추천해요. 「세상을 바꾸는 대안기업가 80인». 정말 좋아서 집에 열권 정도 있어요. 세상에 정말 해야 할 일이 많고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싶어서 힘이 나더라고요. 「꽃들에게 희망을». 이 책은 청소년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읽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앵무새 죽이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히가시노 게이고)», 「벽으로 드나드는 남자(마르벨 에메)」도 추천해요. W



책방 정류장

글·사진_이유민(한밭대학교)

어스름한 저녁, 낯선 여행지에서 막연히 걷다가 불이 켜진 정류장을 발견하면 반가운 마음이 든다. 잠깐 멈춰서 한숨 돌릴 수 있는 공간에서 지친 다리를 쉬기도 하고 목적지를 재점검하기도 한다. 나에게 '책방 정류장'이 그랬다. 낯선 골목을 걷다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는 책방을 발견했을 때의 반가움, 책방에 들어서면 여기저기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다. 마음에 드는 책과 자리에 앉으면 따뜻한 차도 함께 한다.

책방 정류장은 2019년 11월 23일, 대덕구 중리동에서 문을 열었다. 책을 사기 위해서 방문하는 대부분의 서점과 달리, 책방 정류장에서는 새 책을 판매하기도 하고 기부받은 책을 대여해주기도 한다. 물론 나누고 싶은 책이 있다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책장은 동물, 인권, 비건, 청년, 글쓰기 등 주제별로 분류되어 있어 관심 분야의 책을 고르기 좋다.



“

각자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

☰ 일일 책방지기

- '책방 정류장'의 일일 책방지기 체험
- '구매하고 싶은 책 또는 블라인드 북' 증정
- 일일 책방지기가 할 일
 - 책방 & 새로 입고된 도서 정리
 - 마음에 드는 책 소개글 적기
 - 일일 책방지기 일지쓰기 등

👥 샬터에서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

- 월 1회
- 각자의 여건에서 어떤 상황들을 겪고 있으며,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하면 좋을지 공유하는 연대의 자리

🎬 심이(최고로 심심한 어린이) 영화모임

- 주 1회
- 아이들이 돌아가며 자신들이 원하는 영화를 선정해 함께 보고 소감을 나누는 모임



주소_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1174번길 46
 인스타그램_ @bookstorestation
 블로그_ <https://blog.naver.com/bookstorestation>

“각자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오민지 대표의 말처럼, '책방 정류장'에서는 '일일 책방지기'가 되어 그 공간을 꾸려나가거나, 페미니즘에 관해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샬터에서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에 참여해 연대의 에너지를 얻어갈 수 있다. 또한, 소모임을 하고 싶은 데 마땅한 장소가 없었던 사람들을 위해 공간대여도 가능하며 음료와 프로젝트가 제공된다. 앞으로 '수다의 밤', '글쓰기 모임' 등을 하고 싶다는 오민지 대표는 책방이라는 공간에 대한 애정이 가득했다. 저마다의 목적지가 달라도 함께 머무는 정류장이자, 일상적이지만 특별한 대화를 찾을 수 있는 책방, '책방 정류장'이다. 📖

너는 거기, 나는 여기

연해 | 베스트셀러 준비 작가

인도네시아 프로볼링고 시(Probolingo City)에 사는 리스카(Riska)를 영어회화반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가 원하는 언어를 배우기 위해 시작된 만남이었다. K-문화가 전 세계를 휩쓴 영향으로 리스카는 한국어를 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테고, 나는 번역 책 출간을 위해 감각 유지를 하고자 영어를 계속 사용해야 했다. 각자의 필요에 의한 친구였지만 나이와 나라, 시간과 거리를 넘어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사이가 된 건 늦은 새벽에 보내온 리스카의 메시지가 그 시작이었다.

작가 연해는 대전에서 활동하며 「그대가 내게 오던 날」, 「두 번째 시선」, 「너는 거기, 나는 여기」, 「나는 매일 살생부를 기록한다」 등의 에세이와 소설을 썼다.



'까똥'

하루에도 몇 통씩 받는 카톡 메시지였기에 대수롭지 않게 확인을 했다.

'어제 엄마가 돌아가셨어. 심장마비. 나는 이제 완벽하게 고아가 되었다. 또 나는 학교 졸업을 못해서 아이들 못 가르친다. 학비 너무 비싸. 부모 없어.'

내가 보내준 대전의 사진을 보고 리스카가 그린 엑스포 다리

“

상대의 언어를 안다면
결코 어떤 답변도 해주지 못했을 테지만
둘 다 익숙하지 않은 영어로 쓰인 짧고
어설픈 글귀는 그녀가 듣고 싶고,
받고 싶은 위로의 말로 해석할 테니까

”



Riska
Riska

선명하게 새겨진 그녀의 서툰 한국어 메시지를 확인한 지 한참이 지나도록 한 줄의 답장도 보내지 못했다.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정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답변을 바라고 보낸 메시지는 아니지만 답변을 안 해줄 수 없었고 선부른 위로나 어설픈 글귀들의 나열로 마음을 돌려보내기 싫어서 한참을 망설였다. 그녀는 마음이 무너지고, 아프고 슬펐을 텐데 거리가 꽤 먼 시차를 계산하고 메시지를 보냈는지 따위의 고민은 무의미할 뿐이었다. 어쩌면 그녀는 말이 통하는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나 친척이 아니라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내게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녀에게 보낼 위로의 메시지를 작성하는 동안 십 수 년 영어를 써오던 나에게는 가장 어려운 영작의 시간임을 알았다. 나는 그녀의 언어를 모르고, 그녀는 나의 언어를 모르고 우리가 영어로 소통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상대의 언어를 안다면 결코 어떤 답변도 해주지 못했을 테지만 둘 다 익숙하지 않은 영어로 쓰인 짧고 어설픈 글귀는 그녀가 듣고 싶고, 받고 싶은 위로의 말로 해석할 테니까.

마지막 메시지 속 '이제 완벽하게 고아가 되었다.'라는 문장이 자꾸만 나의 마음속을 시끄럽게 만들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자세히는 몰라도 인도네시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갓 20살이 넘는 여자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녀로부터 다시 메시지를 받은 것은 1년이 더 지난 후였다.

‘언니, 나 학교를 졸업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 우리 마을.’

힘든 시간을 어떻게 버텼는지, 긴 시간동안 어떤 일들이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짐작을 할 수 없다. 단지 그녀가 보내온 메시지를 통해 지금은 충분히 행복해 하고 있으며 많이 웃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언니, 마을 신문을 썼다. 언니와 나의 이야기를 썼다. 보내준 책 고맙다. 나는 행복해. 언니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선물 좋아해. I'm your big-fan, 언니, 사랑해.’

후로도 자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서로의 안부를 묻곤 했다.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3차 세계대전을 치르듯 국경을 폐쇄하고 하늘문에 빗장을 채웠다. 작은 책방은 폐업했고 팔리지 않고 남은 나의 책들은 무서운 코로나19 재난 속에서도 안전하게 택배기사의 손에 들려 정확하게 나에게 되돌아왔다. 나는 먼저 묻은 책들을 닦고 미안함에 엽서를 살짝 끼워둔 책방지기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최장 장마라는 타이틀을 달며 전국 곳곳에 폭우가 쏟아졌고, 산사태와 침수로 많은 인명피해까지 있는 지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19 재확산, 또다시 태풍의 복상까지. 휴탕물로 범벅된 집에 돌아와 울던 이재민의 모습이 나를 작아지게 만들었고, 폭염 속에 방호복을 입고



리스카의 일러스트

“

그녀가 보내온 메시지를 통해
 지금은 충분히 행복해 하고 있으며
 많이 웃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

과로와 탈진으로 털썩 쓰러지던 의료진이 나를 한 없이 초라하게 만들었다. 나는 몇 달을 하릴없이 시간을 흘려보낸 뒤에야 온라인 강연과 시스템에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렇게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리스카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언니, 나는 결혼한다. 내가 언니를 초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의 결혼 적령기를 생각하면 이른 나이여서 조금 놀랐지만, 그녀의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안전하냐고 안부를 묻는 그녀에게 이곳은 의료체계가 잘되어 있고, 나는 사회로부터 충분히 보호를 받고 있다고 답변을 보냈는데, 그녀가 사는 곳은 상황이 무척 좋지 않다고 했다. 마을은 봉쇄되고, 병원은 문을 닫고, 많은 사람이 아프다고 했다. 그녀가 서둘러 결혼식을 올린 이유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리스카의 일러스트


“
너는 거기, 나는 여기.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네가 쓰러지려 할 때, 포기하고 싶어 질 때
너의 손을 잡아주길 원해.
지구 반대편 멀리에서도 함께 하고 있어
”

리스카가 접하는 K-문화 속 여자 아이돌은 무척 자유분방하고 때론 과할 정도로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기도 한다. 온 몸과 얼굴을 다 가리고 눈만 보이는 인도네시아 전통 바틱(Batik)을 입은 그녀가 나에게 K-문화 속 여성들에 대해 묻고, 가끔 한국어 책을 보내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할 때면 용기와 노력에 감탄이 나고 응원도 하고 싶어진다.

내가 온라인강연에 적응을 할 때 쯤 리스카 또한 그녀의 삶에 터전에서 적응을 해나갔다. 예전보다 우리는 더 자주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온라인을 통한 관계와 교류에 익숙해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도네시아 프로블링고 시에 사는 리스카와 대한민국 대전광역시에 사는 나의 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 가까워졌다.

학교가 문을 닫아서 그녀는 요즘 온라인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일러스트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한다. 내가 보기에다 솜씨가 좋아 보인다. 최근에는 내가 쓴 글에 그녀의 일러스트를 넣은 그림책을 언젠가 만들자고 미래를 함께 꿈꾸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나는 여기, 대전에서 온라인 강연으로 학생들과 글쓰기를 하고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며 인도네시아 프로블링고시로의 여행을 꿈꾼다. 리스카는 거기, 프로블링고 시에서 온라인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림을 그리며 먼 미래에 내가 사는 도시 대전으로의 여행을 꿈꾼다. 너는 거기, 나는 여기. 함께 꿈을 꾸고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며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2020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의 신간 소설과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 32호를 리스카에게 보내줄 예정이다. 서툰 한국어 실력이어서 내가 보내주는 소설과 매거진의 내용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K-문화를 사랑하는 그녀에게 보내는 감사의 마음이다. 또한 그녀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곳곳하게 이겨나가며 인도네시아에서 멋진 여성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나의 응원이다.

“너는 거기, 나는 여기.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네가 쓰러지려 할 때, 포기하고 싶어 질 때 너의 손을 잡아주길 원해. 지구 반대편 멀리에서도 함께 하고 있어” 



우리집 대청소 하는 날!

따뜻한 주말, 우리 식구는 대청소를 했다.
 요리 대장 아빠는 주특기인 해물 칼국수를 끓이셨다.
 배지락과 해물, 야채를 듬뿍 넣어 국물이 진하고 맛있다.
 엄마는 오래된 전구를 새것으로 갈아 끼우셨다. 그리고
 방충망도 새것으로 바꾸셨다. 우리 엄마 손은 무엇이든 지
 고치는 만능손이다. 고장난 것은 척척 고치신다. 우리는 바닥을
 걸레로 깨끗이 닦았다.

다같이 청소를 끝내고 먹은 아빠의 칼국수 맛은 정말
 꿀맛이었다. 깊은 칼국수 국물처럼 우리 가족의 사랑도 깊어간다.
 길쭉한 칼국수 면발처럼 우리 가족의 행복도 길어져만
 간다.

2020 양성평등 작품 공모전 디자인 부문 아동부 은상작

김지은 | 우리집 대청소 하는 날!

여성이
행복한
도시